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9년 6월 8일 (화) 제74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외대^생 600명 사회의식 설문조사

51.2% "김대중 정부 문제있다"

노동자투쟁, 실업, 국보법, 한총련 등의 내용으로 실시

외대인들은 99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본보는 지난 4일(금) 하루동안 도서관, 휴게실, 매점, 과방, 동아리방에서 총 600명의 외대인을 대상으로(서울, 용인배움터 각각 300명) '1999년 상반기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 국가경제위기와 실업, 김대중 정권 평가, 국가보안법, 한총련 등 전반적인 사회·정치사안에 대한 외대인의 의식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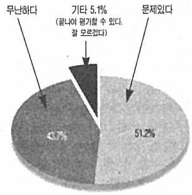
설문조사결과 외대생의 과반수가 넘는 51.2%가 김대중 정부 집권 1년 6개월을 '문제있다'고 평가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지점을 드러냈으며, DJ가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했던 '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72.5%의 학생들이 지지와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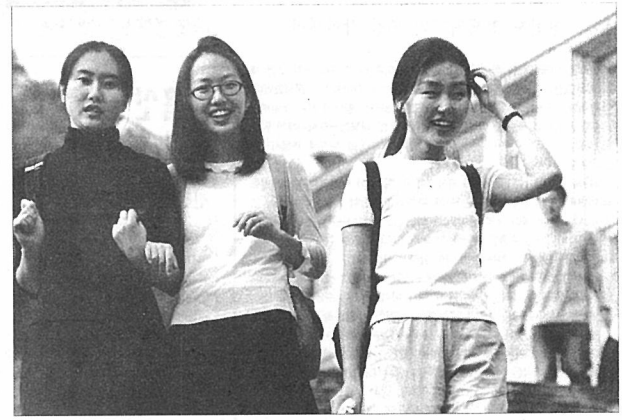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외대생 대부분이(94.9%) 전면철폐나 부분개정을 요구, 인권침해와 공안분위기 조성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73.4%의 외대생들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권의 한총련 탄압에 대해서도 76%의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검신 기자

▶4면으로 이어짐

DJ 1년 6개월에 대한 전반적 평가





집에 가는길(?)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방학이다. 한 학기를 돌이보면 학내 구성원들의 외대개혁의 요구는 높았지만, 체감지수는 낮았다. 또 사회적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불만지수는 높이만 갔다. 좀더 희망적인 다음학기를 기대하며 알찬 방학을 보냈으면 한다. 사진은 밝은 표정으로 하교하는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모습이다. 정호정 기자

제 2건학 기획단장에 성황용 교수 분과위원 확정될 듯

대학평의원회가 지난 4일(금) 본관에서 열려 '제 2건학 기획단' 분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추천 명단을 확정지었다. 이번 인사 선임은 분과위원회 별로 교수 5명에 직원 1명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교수 본인이 거절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외부 회사에 우리 학교 발전계획을 의뢰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편 기획단장과 실무지원단장에는 성황용(정치외교)교수와 이종욱(경영)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 날 추전된 위원 및 다음과 같다.

△교육·학사제도위원회
최충희(일본어), 손동호(영어), 김용민(정외), 신형욱(독일어교육), 정병권(폴란드), 박찬구(철학), 백원장(산업공학), 김신영(교육학), 이재명(입학과)

△연구지원위원회
김현택(러시아어), 고영훈(마인어), 이명호(경영), 성경준(영어), 김희영(불어), 서경교(정외), 홍진표(정보통신공), 김세환(연구협력과)

△조직 행정위원회
김인철(행정), 권석균(경영), 전태현(마인어), 원종근(무역), 윤석만(불어), 유재화(총무과)

△재정 복지위원회
조장연(경영), 김규진(체코), 이은영(법학), 최재철(일본어), 이종환(예산과)

△대학시설 환경위원회
강구영(환경), 이상협(헝가리어), 박영복(법학), 이영구(중국어), 유기찬(관리과)

△대학 정보화위원회
김희동(정보통신), 정일영(정보통신), 정 윤(경영), 이주헌(경영), 황종인(독일어), 이승룡(포루투갈어), 권태형(경영정보), 황경엽(전산운영)

△대외협력 홍보위원회
최 영(신방), 맹주억(중국어), 이정희(정외), 최영수(포루투갈어), 이민종(외국학종합연구센터)

△대학원 발전위원회
최완진(법학), 채희락(언어), 반병률(국제지역대학원), 유원유(대학원 사무1과)

류재석 기자

60개대 학생, 교육부 항의 방문

교육정책 전면 수정요구

'반민족적, 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10대 요구안 촉구'를 위한 교육부 항의집회가 서울·경기, 기타지역 60여개 학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5일(토)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진행됐다.

대학등록금삭감, 국민교육비부담경감 학생 대책위에 속해 있는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학생들도 참가한 이번 항의집회에서 대책위원회는 △공개적 논의기구 구성 통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교육개방을 비롯한 일체의 교육정책 전면 재논의 △국공립대 민영화 특별회계제도 도입감행 중단 △군비축소, 세제개혁 등을 통한 교육재정 6% 확충 등의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리학교 동양학대 학생회장 박애리(태국 4) "김대중정권은 교육개방을 받아들여 교육을 외세에 팔아먹는 장본인이다"며 현시기 교육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덕중 신임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아주대 전다리양은 "우리학교 총장인 김장관은 '등록금삭감투쟁'을 한다는 이유로 9명의 학생들을 제적, 정학처리 등으로 무고한 학생들을 처벌한 사람"이라며 "비교육자적 행각에 대한 고통은 우리학교 학생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교육자 자질없는 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학생대표들은 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날 이를 성사시키려했으나 김장관은 물론, 책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면담이 결렬됐다.

우혜나 기자

사령

임

수습기자
박지환(법·법학 1)
박수용(서양·독일어 1)
박준표(서양·네덜란드어 1)
배윤희(동구·헝가리어 1)
윤홍은(동학·아랍어 1)
장윤선(동구·헝가리어 1)
최현정(동구·헝가리어 1)
최호녕(인문학부 1)

외대학보

반의자

잃어버린 '나' 찾기

▲꿈을 꾼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밤에 수십개의 꿈을 꾼다. 한데 그 꿈 내용이 문제다.

물론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유쾌하지 못하다는 느낌만은 기억할 수 있다. 대충 그 꿈 내용은 이렇다. 내 주위 사람들이 한번씩 돌아가며 나타나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꿈속에 나는 없다. 일을 저지르는, 사건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는 나 조차도 그 꿈 속에는 없다. 나의 어떤 감정개입도 없다. 그냥 그런 기억들을 잠이 깬 후 되새김질 할 뿐이다.

▲그러나 나의 감정개입도 없다는 그 고백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평온하고 완전한 상태를 바라마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꿈 내용에 대해 나는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암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꿈들에 대한 무성한 학설들을 익히 알고 있는 나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추론을 하고자 함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제 3자가 되어버린 내 꿈속의 나는 주인이 아닌 객체가 되어버렸다.

▲나의 꿈속에 나타나던 내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외대와 바깥 사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문회장 선거에서 과거 박승준 세력의 사람들이 진출을 꾀한다는 얘기로 어수선하다. 대학평의원회도 조금씩 꿈트림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다. 또 용인의 등록금 삭감 투쟁은 방학을 맞아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외대개혁의 외침은 외침으로 끝났다.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그랬다. 사실 이러한 사안들의 그 진행정도나 내용은 그렇게 활발하게 알려지거나 또, 그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학내 제반 사안들에 외대인 역시 없다.

▲사회문제도 그렇다. 애써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김대중 현직 대통령에게 '독재자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아니 웃음이 나온다. 민중을 고통받게하는 DJ의 실정을 보면 퇴진 구호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그 말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한구석에서 자신을 찾아본다. 다가올 여름 방학에는 또 내 자신이 없는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임승희

사설

'금창리 의혹' 풀렸지만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 각인해야

올해 초 미국이 제기한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이 명분을 얻지 못한 채 북한 외교전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는 보도가 TV 저녁뉴스를 장식했었다. 당시 북의 '초청' 형식으로 합의된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진행됐고, 북한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는 '한미일 포괄협상안(대북권고안)'을 북측에 관철시키는 일이었다.

북한에 제안된 대북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 개발을 금지하면 한미일 3국이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북의 미사일 수출은 미국에 의해 제재당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화획득의 방책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미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더구나 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는 간섭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자주권'의 문제다. 이러한 사안을 놓고 미국은 포괄 접근 구상이라는 명목아래 '우리의 요구부터 수용하라'는 해묵은 강요를 또다시 들이밀었다. 대북권고안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미국은 페리의 방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최근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북한에서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등 근거없는 의혹만을 남발하며 북한을 상대로 '감경정책'과 '예방공격'의 필요성까지 제기했었다. 지난달 주한미군은 자신의 가족들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소개훈련을 실시, 경기도 오산의 미공군기지에서 집결해 일본으로 피신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훈련이다. 또한 지난 5월 10일 20시부터 21시경까지 북한 초소 맞은편 백여미터 부근에 위치한 우리 측 한병초소에서 미군장교가 배치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가운데 전투장비들이 집결되고, 10여발의 조명탄이 발사되는 등 주한미군이 관문점 구역에서 의도적으로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는 미국과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 우리 땅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긴장국면 조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꾸준히 진행중이며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과의 계속되는 접촉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전쟁위기고조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셈임을 알 수 있다. 페리의 방북 역시 결국 한반도에서의 그럴듯한 전쟁명분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허울좋은 '인권'의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무력침공에 의해 유고연방 민간인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인지하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건,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이 언제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정황들이 한반도를 무대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흡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d의 준말입니다.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이미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이텔, 나우누리(ID:DAE), 유니텔(외대학보))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비판는 점을"지난주 외대학보를 읽고…"란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점이란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흡산의 소리

진정한 주점의 모습은

대동제를 전후하여 여기저기서 주점이 열렸다. 그리고 주점의 주제도 다양했다. 단대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단대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린 주점,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하여 열린 주점, 농민회가 주체가 되어 열린 주점, 전국 철거민 연합이 주체가 되어 주거권 쟁취를 위한 주점등. 새내기인 나로선 대학내에서 열리고 있는 주점들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가보기도 하고, 어떠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지도 알려고 선배들에게 물어 보기도 하였다.

주점들의 대체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했다. 주체들이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미리 판 티켓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신다. 그러나 어떤 주점에서고 주체들이 주점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주점이 어떠한 이유로 열리는지 알리는 발언이나, 유인물 등이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단순하게 광소에 마시던 술을 장소만 바꾸어서 마실 뿐이다. 그리고 주점이 끝난후에 주점을 통하여 생긴 수익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점에 간 학생들이 알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주점을 여는 이유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술을 통해서 그 주점이 열린 이유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사안들을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 단대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열리는 주점 또한 이러한 참여의 측면을 떠나서(학생들이 직접 여는 주점으로) 주점을 여는 명분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굳이 다른 단대 학생회까지 찾아와서 티켓을 팔고, 늦게까지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주점을 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농민회 등 사회단체 구성원은 물론이고 학우들 중에서도 직접 그분들을 돕기 때문에,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주점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아쉬운 주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열릴 주점들이 진정한 주점의 참 모습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을 한지 석달이 조금 넘는 새내기가 앞면 얼마나 알겠냐고 할 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새내기의 눈으로 주점을 보고 주점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피력한 것이라고 이 글을 보고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박종엽〈법·법학1〉

공연문화 나부터 바꿔야

몇 주전 친구 학교의 방송제를 보러 간 일이 있었다. 학교 방송국에서 기술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볼겸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마침 그때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교 곳곳에서 사람들 때문에 북적거렸고 여러 행사로 인해 학교는 마치 재래시장 같았다. 그 날 방송제 게스트로 "프로젝트 밴드 김광석"이 온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방송제가 열리는 장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앉을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게스트의 무대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방송제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쓸쓸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허전했다. 몇 일전 FBS 가요제에서 게스트들의 공연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친구가 방송제가 어쩌느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할말이 없었다. 나역시 방송제보다는 게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에 방송제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는게 별로 없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밤새며 고생한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다.

예전에 비해 공연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회수도 월등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연을 보러 왔으며 왜 그 행사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한 유명한 외국인 지휘자가 아직 연주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연주사이의 끊김(pause)을 연주의 끝으로 착각해서 박수를 치는 바람에 끝까지 연주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박수 소리가 터졌을 때 그 지휘자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공연을 보는 태도 역시 감탄사가 절로 나는 경우도 있다. 공연 중 이리저리 돌아 다니는 것은 양반이다. 오케스트라 연주 도중에 귀에 익은 벨소리가 바이올린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내는 순간 바로 음악적 절정에 다다른다. "띠릿 띠리리리 띠릿 띠리리"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읽은 기사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윤도현 밴드 3집 곡중 '대구가 없네'라는 곡을 설명한 글이었는데 우리의 안타까운 관객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윤도현 밴드가 데뷔한지 얼마 안되어서 TV 출연 제의를 받아들여 녹화 방송을 할 때였다. 통기타 하나 달랑 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굴욕은 벙어리 마냥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수를 쳐달라고 이리저리 신호를 보내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굉콜이나 HOT가 나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조차 보내지 못하는 그런 냉정함. 설사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순간만큼은 최소한 그 공연을 준비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라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장성일〈서양·네덜란드2〉

「외대학보를 읽고…」

교내물가 인상시킨 후생과

우선 외부업체의 교내 입주는 97년도를 제외하고는 학교 대표인 후생과, 학생 대표인 학생복지위원회, 외부업체 합의하에 입주하고 있다.

깜통은 교내에서 매점 한곳과 자판기를 동시에 운영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학생들에게 복지장학금 재원의 약 8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내 자판기는 학교 직영인 건대, 한양대, 임대인 경희대 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내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깜통의 물가는 음료수, 김밥, 샌드위치, 빵류, 라면 등은 타교보다 싸고 과자, 빙과류는 비슷하다.

깜통은 자판기 전문 업체로서 음료, 커피 구입 단가는 다른 곳보다 싸지만 과자등은 일반 시중 슈퍼보다 비싸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후생과 직영인 매점과 임대인 깜통이 있다. 두곳의 운영실태를 보면 후생과 매점은 학기중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방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이고 깜통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시험기간중 24시간 연장근무한다.

깜통의 경우 교내에 학우들이 별로 없는 시간까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후생과, 깜통의 물가는 서로 달랐고, 깜통의 물가가 더 쌌다. 그런데 후반기에 후생과에서 학생복지위원회에 말도 없이 깜통에게 교내 2중 물가가 있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후생과 직영 매점과 가격을 똑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깜통은 이에 따르게 되었다.

비영리인 후생과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임대업체보다 가격이 비쌌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관리비가 안드는 상태에서 세 곳의 매점의 연간 이익이 약 1200만원 정도라면 후생과의 무능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민일 깜통 물가가 비싸다면 깜통 책임보다 후생과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깜통 물가가 비싸다고 비판하기보다 우선 높은 구매단가로 인하여 교내물가를 인상시킨 후생과를 비판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

김응작〈본교졸업생, 98년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내 입이 핵무기다

-나, 뻔한 김영삼-

백지 돼지보

주제: 파키스탄 및 한반도의 핵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지구멸망론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살고 싶으십니까?
오십시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돈 굳었다. 올해만 버티면 된다. -영삼구-

멸망했으면 좋겠다.
-다음학기 학점이 두려운 학생-

완전히 딥 임팩트 (Deepimpact) -영화광-

내 입기는 마쳐야지.
-다급한 DJ-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대나무를 심자.
-대쪽같은 외대인-

맞아, 소행성 때문에 우린 다 죽을지도...
-별을 보다가-

7월이 오면 노씨의 '멸망론'이 멸망할걸?
-낙관론자-

특별기고

동문회 불법성이 외대를 파경으로…

지난 외대 총동문회 이사회의에서 특정후보를 전격으로 동문회장으로 추천하고 그를 회장으로 선출하려한다는 기사가 지난 '외대학보'에 실렸다.

이것은 강인섭 동문회장이 꾸며낸 연극이다. 강인섭씨는 누군가? 지난 97년 1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지난 14년 동안 외대를 부정과 비리로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동원 이사회의 실질적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를 했던 인사가 바로 박승준 "전무" 이사인 것이다.

강인섭씨는 외대의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외대 교수협의회에서 제 1위로 총장 후보의 득표를 얻어 차기 총장으로 내약이 되어 있는 터에 박승준 전무가 추천한 제 2위로 총장 후보의 득표를 얻은 서재명 교수를 불법적인 이사회의에서 총장선임을 하는데에 맨 앞장을 선 장본인이다. 그가 어찌하여 박승준 씨에게 그렇게 충성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외대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99년 6월로 동문회장 임기가 만료되고 그동안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하여 삼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외대 사태와 관련하여 그에게 동조해온 최동호 동문을 총동문회의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동문회장으로 추대하여 투표를 단행했던 것이다.

출석한 이사들은 거의 전부가 박승준씨의 비리 세력에 동조한 동문들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지난 학내 사태와 관련하여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교수들까지 동원되었다. 이것은 강인섭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동문회의 이사회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최동호 동문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의 후임이 되게 하려 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최동호 동문을 불법적인 동문회장으로 "당선"케 하더면 나머지 대다수의 동문들은 그것을 무효화하고 정면한 절차를 밟아 차기 동문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외대 가족의 본고장인 외대의 심각한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구악일소, 개혁 그리고 구성원들의 단합을 전제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설치되고 징계의 절차를 밟아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데 개혁 세력에 동참하는 양 했던 모처장이 징계 대상 교수들을 옹호한 것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징계위원회가 그에게 질의서를 보냈건만 애매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는 외대의 모든 활동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에 그의 입김은 막강하다. 외대가 그 사람의 일개인의 독단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그러한 독단은 이미 외대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내가 맡고 있는 외국어연수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종합연구센터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말하자면, 그의 독단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생산적인"가를 알 수 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여 외대가 실력으로 사회에 기여 한것이 외국어연수원이었으며 지금은 외국어연수평가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 확대하기 위한 기구 개편을 한 곳이 외국어종합연구 센터이다. 그러나 외대의 기구 개설, 조정, 개편 또는 통폐합을 관장하는 기획처가 외국어 대학의 특화의 최핵심 기구인 연수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종합연구센터를 유명무실하다는니 유령단체라는니하며, 발설하며 또한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외대의 중흥과 발전을 깜그리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외대를 완전히 침체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관선 이사회의 장이신 이사장님에게 그렇게 하라의 사정을 허위 보고하여 이사장님의 권위를 흐리게 한으로써 외대구성원들 다수의 원성을 사게 하였으니 그 죄과가 엄청나다 아니할 수 없기에 그들은 당연히 이 학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언감생심 외대의 총장직을 넘보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가십거리로 나돌고 있다. 그와 동조 또는 야합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는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학교의 무거운 자리에 앉아 있고, 또한 외대의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친목을 위한 단체의 장이 그와 쏙닥거리는 행위를 누구나 보아온 것이다.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총장직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군침을 삼키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일삼는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원래가 남의 말을 하기 싫어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고 학교가 일부 불순한 교수들의 작당으로 퇴락 또는 쇠약의 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교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학내의 세력 판도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나의 이러한 지적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떳떳이 학교 언론을 통해 (예컨데 외대학보에 기고하여) 그것에 대한 해명을 당당히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대학 사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 합당한 행동이 될 것이다.

내가 지난 98년 1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외대의 부장과 비리를 일삼아 왔던 박승준과의 피땀에서 제일 선봉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투해 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데에 일조를 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가장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박승준이 지난 번 싸움에서 이기고 학교를 장악했다라면, 파면 제 1호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규철 총장 아니면 이종욱 처장 아니면 김정기 부총장 아니면 정일용 전 교협회장 아니면 박종광 교무처장 아니면 김태정 현 교협회장이었겠는가? 모르겠다. 조규철 총장은 대표로서 아마 징계에 회부되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나머지 고귀하신 분들 즉 외대에서 잘해가 측많되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은 그들이 98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취한 행적을 놓고 보면 지탄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글쎄 이들 5인은 지금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들도 아마 문제의 교수들로 지목되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들의 사심없고 희생적인 애교 행위에 대하여 사심없는 존경의 갈채를 보내는 것이다.

이제는 총장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갖기를 고언합니다. 조금 일찍 물러나면 어떠한가?, 그 자리에 "대신" 하려고 감나무에서 저절로 또는 흔들어서라도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것은 착각이다. 총장이 물러나면 총장과 함께 보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성원들이 바보들이 아닐진대 그대로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대학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나라의 동량재들인 학생들을 위한 단체가 내한 사회이기에 그들이 사심산 대학의 주인이지 않는가? 쓸데 없는 꿈에서 일찍이 깨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역시 "머리"가 있는 교수들일 것이다.

이상준〈영어과 교수〉

총동문회 선거회칙 문제많다

'회장' 선출할 투표인단을 '회장'이 뽑는다

지난 28일(금) 열린 총동문회 운영이사회에서 최동호(영어 57)씨와 김현욱(독일어 57)씨 두 사람이 동문회장 후보로 나와 논란 끝에 투표까지 벌였다.

이 날 동문회장 후보 선거는 김현욱씨가 사퇴의사를 밝혀 최동호씨가 후보로 제청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친 소리가 오가는 모습이 보여진 것은 동문회 본래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문회원중 일부는 '정상화협의회'를 만들어 동문회장선거문제와 대학운영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승준과 교감이 있던 강인섭씨가 동문회장직을 세 번 연임하는데 최동호씨가 주요한 역할을 한 점을 들어 일부에서 박승준 세력이 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에서 최동호씨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누가 보아도 그 세력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다는 점은 동문회장 선거를 위해 과거부터 준비해 온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기후(불어 59) '정상화 협의회' 회장은 "운영이사회 절차를 지키지 않는등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작년에 박승준과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교수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박승준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한 이사는 "중간에 육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최동호씨를 지지하는 세력이 구별되었다. 또한 이 날 운영이사회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가 있었고, 위임장의 수가 참석자의 수보다도 많은 점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교의 동문인 Y교수는 "교수들 중 박승준의 금력에 의해 회유된 교수가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운영이사회 자체에 강한 불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동문회 회칙 자체에 이같은 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악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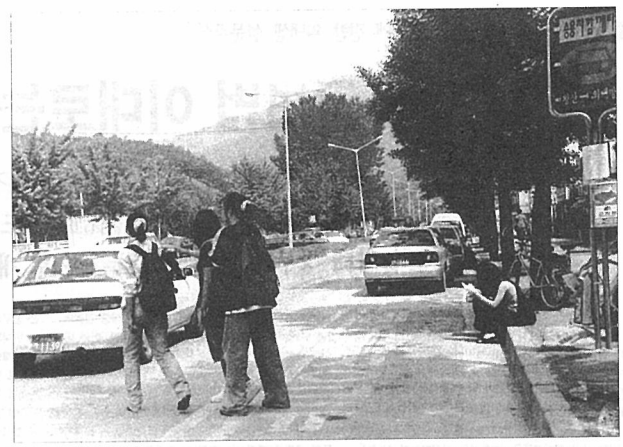
우선 동문회장을 뽑는 운영이사들을 '회장단'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기 동문회장을 선출할 때 현 동문회장의 의사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번 운영이사회에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참여하는 등 차기 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어용이사회가 조직되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연 운영이사회에서 후보를 한 명만 제청해야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동문들간에 이견이 있다. 동문회 측은 운영이사회에서 한 명만 제청하는 이유에 대해 동문간 이견이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회칙에는 동문회장을 결정하는 대의원들 역시 전체 동문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만 하고 동문회장 결정은 대의원 총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운영이사회에서도 두 후보간에 논란이 치열해지자 대의원 총회로 넘겨 대다수 동문의 의견을 묻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동호씨 지지세력의 제안으로 투표 과정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는데 있어서도 동문회장인 강인섭씨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동문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을 통해 사실상 구 재단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현 조규철 총장과 한때 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올해에도 동문회는 학교의 개혁분위기에 협력하지 못하고, 미네르바 미팅 등 단순한 친목단체 이상의 활동밖에 하지 못해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낸 동문회비 등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총동문회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와 같이 동문회 회칙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성이 악용됐다는 의혹에서 시작하고 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현수군은 이번 동문회 문제와 관련 "비민주적인 회칙을 개정하고 박승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해 이번 기회에 동문회가 올바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석 기자



야속해라

"쌔앵쌔앵" 승용차 함께 타기 간판이 무색하게 승용차가 손을 흔드는 학생들을 지나치고 있다.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넓은 공간때문에 차를 타지 않으면 교문에서 30여분이나 걸어야 한다. 학내 셔틀버스 운행등 용인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있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부터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효정 기자-

등록금 삭감, 이렇게 생각한다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개강 후부터 '등록금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총학생회의 민주납부 실시로 2000여명 학생들은 공학을 제기했고 또 총학생회는 기성회비의 부당성을 알려 사회여론화를 유도했다.
반면 대학당국은 학교 재정상 '등록금삭감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4일(금)까지 대학당국과 수 차례의 협상을 벌이며 재정확충, 복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삭감'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진행된 양측의 협상 결과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협의회 박인옥 사무처장

-기성회비의 강제성 · 부당성에 대해

대학이 수 십년간 학부모에게 등록금의 1/3이나 되는 기성회비를 그 내역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공개없이 부담시켜 온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놀라울 뿐이다. 초 · 중등학교의 육성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고 운영권한과 함께 공개를 하는데 대학은 전체 학부모들에게 기성회 가입여부를 묻거나 기성회규정과 기성회 존재여부, 회원이 누구고 어떻게 선출되어 무슨 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대학 운영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등록금과 통합고지 해온 기성회비납부 의무를 꼬박꼬박 지켜온 학부모로서는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수업료 · 기성회비 통합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대학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간의 기성회비명목을 온전히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재정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학부모를 절대로 납득시킬 수 없다.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결정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

재단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대한 권한만을 존중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권한은 무시하는 결정은 대학의 민주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용 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신동헌

실질적인 '등록금삭감'과는 달리 학교측과의 협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록금삭감을 위해 '10% 삭감, 4년 동결'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는데 학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에서도 분명 법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확실한 것은 공탁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협상은 공탁결과에 앞서 학교측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지 않아 산적해 있던 우리학교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 요구안은

이번 학기만 해도 400명의 우리학교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했다. 따라서 실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확충, 분할납부제도 확대 실시할 것과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장~학교간 노선신설, 교통불편으로 인한 피해대책과 분당학생들이 시험기간 중 피해 대책미련 등을 제시했다. 이미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큰불만 사항인 도서관은 내년 2학기 중앙도서관으로 착공하기로 확답 받았다.

한 학기동안 진행한 '등록금삭감투쟁'을 평가한다면

이제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라면 기성회비가 부담하다는 것쯤은 인식하셨을 것이다. 등록금삭감투쟁을 통해 '기성회비가 부담하고 등록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의 구호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쟁점 된 것이다. 그러나 공탁 외에 다른 가처분 소송 등 법정 투쟁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었다. 그로인해 점작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선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도 끊임없이 학교측과 협상 중이다. 장학금 확충 등의 요구를 학교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협상투쟁은 물론 2학기에도 공탁을 전개 할 것을 계획이다.

용 인배움터 학생처장 김성기 교수

학생들의 등록금삭감투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성회비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삭감의 효과로 학교측에서는 장학금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또 학교측은 공탁자들에 대해서 현재 재학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등록자로 규정해 일반학생과 구분 짓고 있다. 공탁자들에 대한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된다.

학교에선은 재단전입금이나 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단전입금 확충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여건이 아직 미련돼 있지 못하다. 재단수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 4억이 책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지원은 교육부의 논리를 예를 들면 '학부제를 실시하면 지원해 주겠다'식이기 때문에 학부제를 반대하는 우리학교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기금미련이 시급한 것 같다.

학생들과의 협상 내용 중 '장학금확충' 부분에서 의견 차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학교 예산은 711억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이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대신 학생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 돼 매년 1억 4천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상은 우리학교 사정상 무리다.

장학금 확충 외에 우리학교 동문회 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차차 지급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대학은 바뀌어야 한다.

2000학년도 일본 문부성 초청 연구장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2000학년도 일본 문부성 초청 연구장학생 후보자 선발을 위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일내 접수 하기 바랍니다.

1.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장소 : 서울 · 용인캠퍼스 학생처
   나. 기간 : '99. 5월 18(화) - 6. 8(화)
2. 모집분야
   가. 자 연 과 학 계 열 : 이학, 공학, 농학, 수산학, 약학, 의학, 치의학, 가정학 등
   나. 인문 · 사회과학계열 : 문학, 사학, 미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음악, 미술 등
   다. 일본어 · 일문화 계열 : 일본어, 일문학, 일어교육, 일본학
   ※참고 : 일반차로로 일본국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과에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 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연령 : 2000. 4. 1 현재 만35세 미만인 자(1965. 4. 2 이후 출생자)
   다. 학력 : 대학졸업자 또는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하는 자
   라. 성적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학부과정 전학년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단, 대학 4년생은 '98학년도 2학기까지의 학부 전학년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마. 전공분야 : 일본에서 전공할 분야를 국내대학(또는 대학원)에서 이미 전공했거나 전공중인 자(전공분야와 응시분야가 다를 경우 접수하지 않음)
   바. 병역 : 병역 복무를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단, 병역미필자는 76.1.1 이후 출생자
   사. 기타
   (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지원할 수 없음
   (2) 지정 날짜에 일본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일본정부(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동시에 부부가 지원할 수 없음
   (4) 과거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대학 재학중 일본이 · 일본문화연수 참가자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응시할 수 있음)
   (5)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미 등록(군입대 · 휴학포함)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999. 5.

학 생 처 장

취업특강안내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취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취업특강을 실시하고자 하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 1999. 6. 11(금) 14:00
2. 장소 : 대강당(인문과학관)
3. 강사 : 신현덕(엘리트뱅크 대표)
4. 연제 : "IMF시대의 채용전망과 대책"
   -내용 : (1) 채용패턴의 변화
   (2) 취업준비에서 합격까지 단계별 방법론 제시
5. 주최 : 학생취업정보센터
※ 특강 당일 ['99 취업길잡이]책자를 참관 학생들에게 우선 배포할 예정임.

1999. 6.

학 생 취 업 정 보 센 터 소 장

'99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신청 접수안내

우리대학교 1999학년도 제2학기 성적장학금 및 고시장학금 수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기일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 신청기간 : '99. 6. 7(월) - 6. 23(수)
▶ 신청자격 : 1999학년도 제2학기 등록예정인 자로 장학금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신청장소 : 각 학과장실
▶ 신청서류
1. 장학금수혜신청서(각 학과장실 비치)
2. 기타 학과요구서류

⊙ 고시장학금

▶ 신청기간 : '99. 6. 7(월) - 6. 23(수)
▶ 신청자격 : 1998. 12. 1 - 1999. 5. 31 기간중 국기에서 행하는 고시(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에 1차이상 합격하여 1999학년도 제2학기 등록예정인 자로 장학금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계
▶ 구비서류
1. 합격확인서
2. 성적증명서

⊙ 공통사항

'99학년도 2학기에 외부장학재단 및 호훈, 학생회 간부, 교내부서 근로 등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자는 위 장학금 수혜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999. 6.

학 생 처 장

제2차 정부지원 인턴제

노동부에서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제2차 정부지원 인턴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각 기업체에 정부지원 인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노동부 고정 68500-773('99. 5. 31)
   ⇒정부지원 대졸인턴제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나. 제2차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
   다. 제2차 정부지원『대졸인턴제』시행안내
2. 자격 요건
   가. 대학(원) 졸업자 및 '99.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실업급여를 수혜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제외
   다. 기타 정부실업대책을 수혜중인 자 제외
3. 신청기간 : '99. 6. 7 ~ '99. 6. 18
   ※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4.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99. 6.4(금) 38면]
5. 신청문의 : 학생취업정보센터 (☎961-4436/4464, 0335-330-4040)

1999. 6.

학 생 취 업 정 보 센 터 소 장

99년 상반기 사회·정치 문제에 관한 외대생 설문조사

94.9% 국보법 이대로는 안된다

'노동자 총파업 투쟁' 72.5% 지지입장
정부의 한총련 탄압 반대 76%로 압도적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정부와 재벌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85.5%

(1면에서 이어짐)

설문조사결과 외대생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한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였다. 전면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부분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로 외대생의 대부분인 94.9%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서도 73.4%의 외대생들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정권이 자행하는 한총련 탄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총련'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총련이 학생들과 좀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좀더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쳤으면 한다' 등의 많은 기타의견이 제출되기도 해 학생들이 한총련에 바라는 지점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했다.

DJ 정권 평가에 대해 외대생들은 기대와 실망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였다. 51.2%의 외대생이 '김대중 정권의 1년 6개월이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와 비슷한 수치인 43.7%의 학생들은 'DJ 집권은 무난했다'고 평가해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광주에서마저 '김대중 퇴진'의 구호가 나올 만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대조를 이뤘다.

지하철 총파업을 필두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72.5%가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명, 노동자들이 내걸고 있는 '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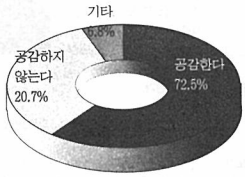
국가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견해 둘 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IMF의 요구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외자유치에 힘써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0.8% 였는데, 이와 반대되는 대안인 '경제위기를 불러온 진짜주범인 정부와 재벌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용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85.5%로 집계됐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많은 외대생이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는 정부의 대안을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24.7% 낮은 수치로, 세계화와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사회복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폐해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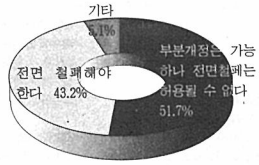
이런 사실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리해고는 반대한다'는 기타의견이 많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김겸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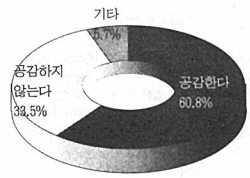
1. 올해들어 '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며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2. 최근 부문개정과 전면철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3. 정부는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IMF의 요구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외자유치에 힘써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4. 전국 41개 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위기를 불러온 진짜 주범인 정부와 재벌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고 고용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 분석하는 설문결과

국가보안법 우리학교 법학과 이호중 교수

외대생 51.7%는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전면철폐'를 찬성한 43.2%보다 높은 수치다.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면철폐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보법 부분개정을 찬성하는 외대생들의 생각이다. 이에대해 우리학교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어떤 형태로든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인 행법을 통해서도 반국가적 행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정권이 얘기하는 안보상의 문제(간첩, 테러 등)는 형법 조문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보법이 철폐되면 안보에 큰 허점이 생긴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교수는 "사상·표현의 자유, 인권문제가 국가보안법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측면에서 국보법 철폐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시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정책을 천명했던 김대중 정권이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제는 북에 대한 올바른 자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생각이다.

또 그는 "현재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제는 정권의 '승인'이다. 결국 정권의 맘에 들면 교류를 허용하고 맘에 안들면 불허하겠다는 것이며 불허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일문제를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국보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반정부운동세력 즉 학생,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개정논의를 펼치는 김대중 정권의 정책은 한마디로 눈속임"이라고 밝힌 이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대중 정권 평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정해구

"DJ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는 통계수치다. 대학생들이 문제를 날카롭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대중 정권 평가' 결과를 분석한 정해구 박사의 말이다.

설문조사결과 외대생의 51.2%는 '김대중 정권의 1년 6개월이 문제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교수는 이와 비슷한 수치인 43.7%의 외대생들이 'DJ 집권이 무난했다'고 대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선 DJ의 개혁이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건부 지지를 보내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현 정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DJ는 경제회복을 외치며 사회안전망 대책없이 시장주의 논리를 주장,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수세력과 결탁하고 나아가 과거 독재정권의 행각까지 정당화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DJ정권의 진보·민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보수로의 회귀는 오히려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사람들에게 '과거정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DJ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냉철한 비판이 중요한 때"라며 "문제를 정확히 지적, 비판하는 지성인다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국가경제위기 극복방안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조 교수

설문조사 결과 국가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IMF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논리에 공감하는 의견(60.8%)과 이와 반대되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진짜 주범인 정부와 재벌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대안에 찬성하는 의견(85.5%)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국민에게 '고통분담'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라는 외대인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는 과연 누구의 자유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비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다수 노동대중의 희생을 통해 획득될 뿐이다"라고 지적한다.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세계경제제도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등한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수하게 '세계적'이지도 않고 경제논리에 못지 않게 정치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경제적'이지도 않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사실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하는 김상조 교수는 세계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대다수의 희생을 통해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강대국의 논리에 종속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경제적·정치적 주체로서 자립하는 길 뿐이다"라고 외대인들에게 이야기한다.

사회부

태평양

제5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한번 들어봅시다.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

깔깔한 사회학 언어가 아니라
문화라는 울림통으로 페미니즘을 말하는 여자.
대한민국 여성의 기립박수를 받은
'서울여성국제영화제'도 올해로 벌써 2회째.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와 여성전용 연극관을 보아도
말보다 발로써 여성문화운동을 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여자, 이혜경-
그녀가 '여성계의 문화부장관'이라 불리는 건
높디높은 정신보다는 쓱쓱 닦아내었던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평양이 또 다른 이혜경,
또 다른 21세기의 여성 리더를 기다립니다.
당신, 여성의 21세기를 보여 주십시오.

이 혜 경
여성민족연합 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3회문화예술기획 대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여성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봉사해
성대히 잘 마쳤고 9월의 여성미술제를 준비중이다.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 '99. 9. 1~10. 31
3. 응모주제 : 새로운 천년과 풍요로운 삶
4. 응모방법 : •분량: A4용지 20매 내외 분량(워드프로세스 이용 직성 제출)
•제출서류 : 1. 원본 및 사본 2부 2. 재학증명서('99년 8월 현재) 3. 지기소개서 1부(여권용 사진부착)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기재
•공동연구는 2인에 한함
5. 시 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1999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 출 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함)
8. 기타사항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수상자는 당사 임시시 우대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제출 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02-749-2388/02-709-5631)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컬처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위한 새롭 작가는 단체로, 김혜경 대표를
여성문화를 전문적 · 일반적 여성문화 전문인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한국 지성사의 회고와 성찰(근·현대사 백년을 중심으로)

한국 지성사 100년이 가리킨 역사적 좌표

'한국에도 지성사가 있는가'

새로운 천년을 어떻게 맞이할것인가라는 답은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보는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지식인은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그 처방전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속에 교수신문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지난 4일(금) '한국지성사의 회고와 성찰 - 근·현대사 백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지난 100년동안 근·현대사 속에서 지식인들이 과연 그 역사적 좌표를 어떻게 설정했으며, 그에 따르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를 통해 "지식인은 그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 해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규정한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언론학)씨는 지식인의 형을 크게 '인텔리겐챠'와 '인텔렉츄얼'로 구분하고, 우리 역사속에서도 이 두 부류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말·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을 살펴본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한국사학)씨는 "기존 세계관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대응하는 학문과 사상을 구축하는 시기였고, 지식인들이 그 책임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민족문제를 두고 처신했던 지식인의 양면성을 고찰했다.

역사최대의 격동기였던 '좌우의 이념대립과 정부수립(1945-60)' 시기를 분석한 조동일(서울대 교수, 국문학)씨는 "좌·우익의 편향성을 넘어 민족문화의 저력을 계승하고 민족동질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민족지성'의 역할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군사정권의 억압이 횡횡했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대립(1961-87)'의 시기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정영태(인하대 교수, 정치학)씨는 "지식인들은 개발독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묵종하였고 일부 지식인들은 아예 개발독재를 지지, 찬양함으로써 지식사회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휴유증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이행과 시민사회의 성숙' 속에서 보여지는 지식인상을 조명한 임현진(서울대 교수, 사회학)씨는 '지성의 중화경향을 보이는 지식인'을 지적하며 '비판성과 사상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용성과 참의성 위주의 논의는 지성의 변조를 넘어 지성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술부

지식인, 전인류적 입장에서 지적 비판활동 벌여야

지난 백년동안 우리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우리의 지식인들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누구였던가.

백년동안의 전반부, 식민통치 시대에 과감하고 행동적인 지식인이었던 '인텔리겐챠'와 여기에 비해 다소 온건하고 최소한도로 현실에 적응하면서 민족계몽운동과 문명·개화운동에 정성을 다한 지식인들은 '인텔렉츄얼'의 유형에 속하는 지식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백년동안 이 두 부류의 지식인만이 존재했던것은 아니다.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전문화·기능화 되어갔고, 지식인도 상당수는 '직업적·기능적 지식인'으로 변모해갔다.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텔리겐챠'와 '인텔렉츄얼'들이 민족의 수난을 고뇌하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 '직업적·기능적 지식인'들은 일본 식민통치 집단에 협력하고 고용담함으로써 안주와 풍요를 누려왔다. 그리고 정통성 없는 정권에 적극적으로 빌붙어서 허망한 출세와 영달을 꾀해왔다. 그들은 오로지 '반역의 지식인'일 따름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지식인들은 '테크노크라트'의 확대로 점점 변질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지식인들도 보편적 가치와 전 인류의 입장에서 지적 비판활동을 전개할때이다.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언론학)

일제 강점기, 전통적 학문과 신학문의 세대교체 시작

한말 일제 강점기는 세계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가장 격동기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서세동점의 세계사적인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기존의 전통적 지식인은 종래의 세계관을 넓히지 않을 수 없었고, 구미의 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세대로 변화되었다. 때로는 전통적인 지식이 무용화되고 새로운 지식체계가 구축되어야 했다.

△척사위정계(斥邪衛正)계와 개화(開化)계 - 척사위정계는 일련의 유학자들과 '영남만인소'가담했던 전국의 유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개화사상가들은 서세동점의 구조속에 들어간 세계사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포착하면서 개방화의 조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해보려는 일군의 지식인들이었다. △국내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 - 한말 일제 강점기에는, 앞서 말한 전통적인 지식인들과는 달리, 국내의 신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있던 지식인군이 있었다. △해외유학생 - 일본과 중국, 그리고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들아온 이들이다. 일제강점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땅의 최고 지식인들이었지만, 이데올로기 투쟁에 휘말리면서 희생되거나 분단체제가 굳어지면서 어느 한 체제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우한 처지에 서게 되었다.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학)

해방직후, 외세반대 민족단합 꾀한 '민족지성'

식민지 통치를 받던 세계 여러 민족이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일제히 독립을 획득했다. 그렇게 해서 제1세계, 제2세계와 다른 제3세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제3세계의 지성인들은 억눌려있던 자기네 민족문화를 되살려 인류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세계사를 새롭게 참조하는 지혜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세계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길로 접어드는 불행을 겪었다. 1948년 남북분단 후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한 상황에서, 남쪽에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를 따르는 제1세계 노선이,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제2세계 노선이 들어섰다. 남북분단과 체제 이질화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엇갈렸다. 좌우익의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문화의 저력을 계승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하는데 힘쓰고자 한 부류이말로 '민족지성'이라 일컬을 수 있다. 이것은 매몰되고 잊혀진 우리의 유산으로, 이를 찾아내 재평가해야 한다. 1945년부터 몇년 동안의 민족지성은 그리 대단한 유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직접 소용되어 아주 소중하다. 좌우의 양극단을 넘어서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외세사상의 지배에 민족의 역량으로 맞서려고 한 의지를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조동일
(서울대 교수, 국문학)

개발독재기, 대미종속성과 근대화 패러다임에 대한 침묵

개발연대 기간동안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개발독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묵종하였고, 일부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강한 지식인들은 아예 발벗고 나서서 개발독재를 지지하거나 찬양하기조차 하였다.

개발연대 기간동안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묵종한 이유 중에는 당시 학계를 지배했던 '근대화 패러다임'의 폐단도 컸다.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온 근대화 패러다임은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이상 성취되어야만 정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런 경우조차 경제발전이 저절로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발독재를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전통과 가치를 극복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 민족주체성과 자긍심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계 전체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을 개발독재와 근대화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80년대부터 본격화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개발독재는 물론 학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지식인들의 비판기능을 회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 정치학)

세계화·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책무 중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지식인은 민중과 권력 사이에서 도피, 비판, 저항, 이합, 아부, 협조 등 출렴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1987년 민주항쟁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몽과 고통으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한다. 군부-권위주의 정권아래에서 분단·냉전·안보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린 언론·출판·결사·사상의 자유가 서서히 복원되는 지성의 개방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걸쳐 지식인의 위상도 종래의 저항과 비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참여와 개혁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나아가는 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들어와 지식인의 현실비판과 사회개혁의 의지는 여러 형태의 광범한 학술·문화·시민운동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한국은 갈길이 매우 멀다.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재의 구조개혁은 신조합주의적 계급타협을 가장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 노선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위기처방은 필지언정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 안팎의 여건을 볼때 지식인의 비판적 책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현진
(서울대 교수, 사회학)

학술 단신

아사연, 북한법 관련 서적 출간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우리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에서는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을 출간했다.

이책은 남북한이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2년에 기본합의서를 합의, 발효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소개하고 북한법의 향후 전망을 지적하고 있다.

문의 : 도서출판 아사연 396-2590

서울배움터 동연 사회과학분과 공개사사 토론회 개최

지난 4일(금) '상반기 노동운동 평가'를 주제로 한 공개시사토론회가 우리학교 동아리연합회 사회과학분과 '프로메테우스'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혜련(구속노동자후원회)씨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착취와 억압의 강화로 나타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누적되어 폭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견되었던 99년 상반기 점세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하철 총파업에 대해 "파업찬성률 86%보다 높은 89%의 파업참여는 지하철 파업사상 최고의 참여기록이고 이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라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저항은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을 이끄는 선두에 선 영웅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고통분담론' '노동자이기주의' '복귀율 조작발표' 등 정권의 이데올로기공세에 당당히 맞서는 노동자의 정치적 관점이 이후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OK할 때까지
ok/SK

Mobile & Multimedia
M&M은 Mobile&Multimedia로 미리로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무선통신과 멀티미디어 분야를 의미합니다

제4회 M&M 논문대상 공모

세계일류 종합정보통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생각을 기다립니다.
내일의 인재를 발굴하고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하게 될
무선통신과 멀티미디어 관련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주제 (아래 관련 주제 중 택일)
· 정보통신 정책분야
· 정보통신 Marketing 분야
·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신상품 개발 분야

논문분량
· 본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A4 Size 20매 내외)
· 요약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 Size 3매 내외)
※ 본문은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 총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등위	수상편수	상금	비고
대상	1편	1천만원	상패, 해외연하
금상	1편	5백만원	
은상	2편	3백만원	
동상	6편	2백만원	상패, 기념품

· 2인 이상의 공동 논문일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시상

심 사
· 1차 : 예비심사 · 2차 : 본심사

접수기간
· 1999년 9월 15일 ~ 9월 30일

논문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 100-09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텔레콤 홍보실 M&M 논문대상 담당자
· 전화 : (02)3709-0795
· 우편접수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기 타
·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응모논문은 타 논문공모에 응모하였거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SK텔레콤 소유임
※ 당선작발표 : '99년 11월 초 개별통보

주최 : SK Telecom 東亞日報社 후원 : 정보통신부

심층취재 – 서울배움터 풍물패 소음문제

소음문제, 대안은 있는가?

연습실마련, 도서관 이중창 설치, 연습시간조절… 서로의 '자치권 인정' 필요

"어쩌다 5~6개 풍물패가 한꺼번에 연습하는 날이면 귀를 막고 공부해야 할 정돕니다. 학교는 최소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는 지켜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만난 이진형(서양·영어 4)군의 말이다.

서울배움터 풍물패 소음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주 도서관에 대자보가 붙은 것을 비롯, 학교 홈페이지상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서울배움터에는 단대·과 풍물패 15개와 동아리 1개패가 존재한다. 협소한 서울배움터내에서, 특히 풍물은 울려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도서관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시끄럽다' '다른데 가서 좀 쳐라'는 등의 비판여론에 대해 풍물패 학생들 또한 할말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쪽에서 연습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면 또 항의가 들어온다. 제대로 된 연습공간 없이 늘 눈치보며 연습을 해야한다. 심지어는 경희대까지가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다." 법대 풍물패 '법꽁' 패장 황필선(2)군의 말이다.

풍물패 문제의 '가능한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은 첫째, 미네르바 동산의 구 구내서점 자리에 연습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지난 97년 처음 제기되었으나 학교측이 공간 재배치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지난 4월 구내서점(출판부)이 교수 연구동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공사설계도면이 나와 7월경 방음벽, 흡음창이 구비된 연습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내서점 공간중 반은 학교창고로 쓰여질 예정이어서 풍물패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대풍물패연합 정책국장 박지은(동양·인도어 3)양은, "80평 공간이 확보되면 3~4개패가 한꺼번에 연습을 할 수 있어 일주일에 세 번은 '풍물소리 없는 날'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간이 반으로 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적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금으로선 더이상의 공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학생처 이재정 주임)며 공사를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둘째, 도서관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부하기에 지장이 없는 소음도는 66데시벨이하인데 이중창을 설치하면 그정도 소음도를 유지할 수 있다. 총학생회 집행국장 최정훈(동양·중국어 4)군은, "여름방학때 도서관 모든 유리창에 이중창 공사를 해 줄 것을 학교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라며 공사에 대한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그외에도, 도서관 앞 방음벽 설치 등이 논의 됐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나, 방음벽자체가 소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곳으로 튕겨내보내는 기능을 하므로 다른 건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셋째로는 연습시간을 조절하는 대안이 있다. 현재는 16개 풍물패가 요일별로 방과후 3~4개패씩 시간을 정해 연습을 하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거기에 참가해 오후 5시반~8시 사이에만 연습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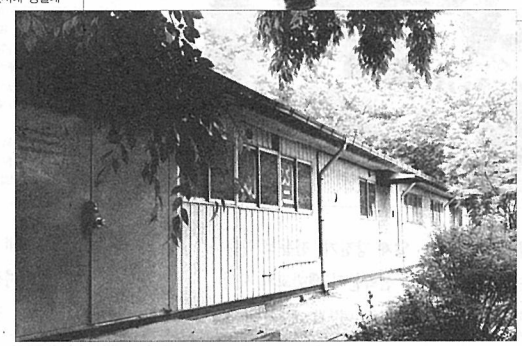
이밖에 미네르바 동산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은 한 개패 정도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외 조금만 고시원쪽으로 넘어가면 지장을 주게 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풍물패 연습공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부지가 넓기로 소문난 용인배움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문관 뒷편에 자리잡은 서풍연(서대 풍물패연합) 또한, 연습시 근처 경상대, 어문학과 교수, 학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 5시반 이후에만 연습을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더군다나 공간이 협소한 서울배움터의 경우 더욱더 절박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매번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학교측은 "사회과학관에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96년 본보 673호 6면)는 등의 약속을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외풍연 의장 강석천 (사법·독교 4)군은 "이번 연습실 신축으로 소음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학교측의 성의있는 실행과 함께, 학생들 또한 서로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장서윤 기자



서울배움터 풍물패 소음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간마련 문제는 계속 논의돼 왔던 만큼 학교측은 성의 있는 태도로 연습실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 사진은 '민속학 놀이반'의 연습 장면. 하단 사진은 연습실로 개조될 미네르바 구 구내서점의 모습이다.

공연이야기 –외대연극회 '종로고양이'

인간 향한 고양이들의 냉소

"사람들 사이의 모순이나 욕망의 허상을 고양이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외대 연극회 스물 다섯 번째 워크샵 공연의 연출을 맡은 고제후(서양·독일어4) 군의 말이다. 우리 학교 대학원 소극장에서 3일(목)부터 5일(토)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열린 이번 공연의 제목은 '종로 고양이' 종로에 있는 '낙원'이라는 다방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보며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종로의 도둑 고양이들이 이 연극의 큰 흐름이다. 연극의 서두와 결말에는 고양이들의 모순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미아옹, 미아옹, 미야옹', '너 왜 우니?', '신나서 운다.', '신나는데 왜 우니?', '웃는 거다.', '아, 얼굴 보니 웃는 거구나.' 이 대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고양이끼리 조차 서로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듯 인간사에서도 그러하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집착, 허상, 욕망. 이것이 이 연극의 주제이다. 극중 인물 김시부는 어머니에 대한 아픈 기억과 종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낙원다방'을 손에 넣는 것이 종로를 손에 넣는 것이라 생각하는 시부는 다방의 옛주인과 싸우고, 결국 다방을 손에 넣게 된다. 이때,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홍삼화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삼화는 미국에 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비를 마련하고자 몸을 팔려고 한다. 시부는 그런 삼화를 낙원다방에 취직시켜 일하게 한다. 삼화는 그런 시부를 좋아하지만, 우연한 살인사건에 휘말린 시부는 삼화의 행복을 위해 삼화와의 이별을 선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 삼화를 만나게 되지만 이미 삼화는 몸도 버리고 마음도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삼화는 몸을 팔며, 부패한 세상에 물들어버린다. 시부가 처음 만났던 순수한 삼화가 아니었다. 시부는 삼화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고자 '따뜻한 세상으로 가자!'며 삼화를 목 졸라 죽이게 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 고양이들은 저들끼리 다툼하는 인간들을 비웃고, 인간을 몰아내 언젠가는 고양이의 세상을 이룰 것이라는 - 시부가 종로를 손에 넣겠다는 생각과 같은 - 야망을 갖고 산다. 이 연극을 통해 사람들은 한 발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연극을 보고 난 후 이영준(동양·일어1)군은 "새내기들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엿 보였다. 첫번째 공연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로 연기를 잘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표 수습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입니다

(5) 영화로 읽는 일본 문화 - 우나기

성의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우나기'

한국영화 「쉬리」에 이어 극장가에는 또하나의, 물고기를 소재화한 일본영화 「우나기」(뱀장어)가 선보여, 관객들과 영화비평계 양측으로부터 온후한 시선을 받고 있다. 쉬리가 한국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토종적이고 까끗한 이미지의 물고기라면 일본의 뱀장어는 생존의 장을 바꾸어 나아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고기라 할 수 있겠다.

일본의 대다수의 뱀장어들은 동경과 거의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는 태평양쪽의 토네강 이남의 바다에서 부화한다. 그러다가 늦은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걸쳐 알컷뱀장어들은 어느 수컷의 새끼인지도 모른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부화한 새끼뱀장어를 바다에서 하구로 데리고 온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치어는 하구의 진흙 속에서 운신을 보존하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진흙안에서의 고독, 치어에서 성어로의 힘겨운 성장과정, 그리고 자기혈족보존보다는 개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우주적인 생태지향과 같은 뱀장어의 고유성이 그대로 「우나기」의 주인공 아마시타에게 축약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영화는 평범하나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고 결백한 아마시타가 아내의 외도현장을 습격, 살해한 뒤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살다가 어느 여인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다. 진부한 내용이나 야마시타의 자기로부터의 해방과정을 전적으로 뱀장어에 동일화시킨 구조적 묘미 때문에 신선함이 있다. 그중, 혼례복을 입고 있는 여주인공을 태운 배가 상류로 향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숏으로 잡혀있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를 뱀장어와 매치시킨 구조를 일관성있게 완결짓는 최상의 씬으로 생각되어진다. 그잣은 그녀가 향하는 곳이 상류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을 성어가 된 야마시타의 열려진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야마시타에게 뱀장어가 그의 삶의 분신이자 반사경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였다면 생활 속의 뱀장어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인들의 입의 쾌락과 왕성한 스테미너, 즉 원초적인 쾌락과 직결되어져 있다. 1200여년 전의 시가집인 『만엽집』에 여윈 노인을 조롱하며 장난삼아 뱀장어라도 먹어보라는 어느 가인의 노래가 있으며, 근세 에도시대(18세기)부터는 뱀장어요리를 먹는 날이 아예 정해졌을 정도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의 뱀장어는 그야말로 음식을 통해 성의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물고기이며,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성과 생명력이 혼합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굳이 그 경계를 나누지 않을 때 그 영화를 일본영화적인, 아니 이마무라적인 영화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김 영 심
〈일본어과 강사〉

동아리 여행 마당

새책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홍세화 지음
한겨레 신문사
7,500원

'남민전' 사건과 관련, 지난 79년부터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해온 홍세화씨는 95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냈다.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는 제목의 두번째책은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고 한국의 권위주의·교육·사회문제 등을 비판하는 문예비평 에세이다. 유럽문화 중심지에 있던 그는 프랑스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다. 그의 사회비판은 극우세력 비판과 연결된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스스로 극우라 칭하지않았고 보수라 칭했다. 한국에는 극우만 있을 뿐 세련된 보수는 없다'고 말한다. 정치이념에서의 '세련성'을 강조하는 그는 한국의 진보세력은 세련된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디어와 권력

김중배 지음
나남
10,000원

중견 언론인 김중배씨가 한국사회와 언론에 관한 비평서를 펴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거쳐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96년에서98년까지 '미디어 오늘' '당대비평'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것. 여기에 실린 글들은 주류 거대언론을 벗어난 매체에 발표되어 비판의 강도가 한층 더 신랄하다. 40년간 언론계에 몸담아오며 바라본 한국언론의 모습은 참담하다. 저자는 한국언론은 권력이건 자본이건 힘의 태양을 좇아 옮겨다닌다고 해서 '해바라기 언론'이라고 칭하면서 복종과 추종을 의미하는 '참종'이 아닌 자발적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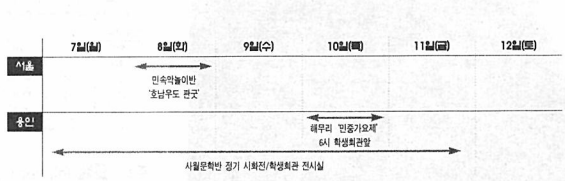
국제영화

제5회 진보영화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가 개최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보영화제가 5회째를 맞이했다.
제5회 진보영화제는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거세어지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담은 다큐멘타리 작품들을 준비했다.
또한, 그리고, 평소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는 노동자, 철거민들을 모시고 함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당도 있다.
문의 :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 02) 826-8134.

국제 학사일정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저녁	대학원생 백반	대학원생 일품요리
월 (7일)	육개장 (₩1,500)	부대찌개 (₩1,500)	어묵감자국 (₩1,500)	무채불고기 (₩2,300)	산채비빔밥 (₩2,700)
화 (8일)	생선조림백반 (₩1,000)	콩나물국밥 (₩1,400)	치커리오이생채 (₩1,500)	두부호박국 (₩2,300)	오징어볶음덮밥 (₩2,500)
수 (9일)	순두부찌개 (₩1,300)	탕수육덮밥 (₩1,500)	무어묵국 (₩1,400)	순두부김치국 (₩2,300)	애호박된장찌개 (₩2,500)
목 (10일)	제육볶음백반 (₩1,000)	산채비빔밥 (₩1,400)	상추쑥갓무침 (₩1,500)	돔배추국 (₩2,300)	비프커틀렛 (₩3,200)
금 (11일)	애호박된장찌개 (₩1,300)	소고기떡볶음덮밥 (₩1,500)	두부장국 (₩1,300)	근대된장국 (₩2,300)	닭곰탕 (₩2,5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후복관 초·중식	후복관 석식	후복관 볶음밥	후복관 덮밥/양식	후복관 탕
월 (7일)	콩나물국 (₩1,400)	무채어묵국 (₩1,400)	제육김치볶음밥 (₩1,400)	돈까스/미늘빵 (₩2,000)	사골우거지탕 (₩1,800)
화 (8일)	우거지된장국 (₩1,400)	두부김치찌개 (₩1,400)	쉰아채볶음밥 (₩1,400)	후라이드치킨스파게티 (₩2,000)	육개장 (₩1,800)
수 (9일)	호박고추장찌개 (₩1,400)	콩나물냉국 (₩1,400)	쇠고기김치볶음밥 (₩1,500)	불고기덮밥 (₩1,800)	물냉면 (₩1,500)
목 (10일)	시금치된장국 (₩1,400)	쇠고기무국 (₩1,400)	게맛살볶음밥 (₩1,400)	치킨가스 (₩2,000)	떡만두국 (₩1,800)
금 (11일)	부대찌개 (₩1,400)	미역냉국 (₩1,400)	양송이볶음밥 (₩1,500)	콩나물덮밥 (₩1,500)	설렁탕 (₩1,800)

대학문화, 너를 말한다

외대 백화점을 반대한다!

<3> 대학내 상업화를 걸

99년의 대학가 과연 '대학문화'는 존재하는가? 거미줄처럼 우리 일상을 얽어매는 '자본의 힘'으로 인해 실상 '대중문화'와 '대학문화'의 경계지점이 모호해진 이 때 그래도 우리는 대안적 측면의 '대학문화'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급박하게 진행됐던 학내흐름을 돌아보며 우리시대의 대학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5월말에 있었던 대동제는 이런 저런 면으로 꽤나 화제가 되었다. 외대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애드벌룬, TV에서나 보던 '로데오' 등의 놀이기구, 전위예술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 여기저기에 주점이 설치되어 전례없이 떠들썩하면서 입학한 후 처음으로 대동제 같은 대동제를 경험해 본다는 사람들로 온통 부산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도 화제가 된 것이 있다. SPEED 011을 홍보하며 가입 신청을 받던 짧은바지를 입은 늘씬한 아가씨들이 또한 화제가 되었다. 말이라도 한번 건네줘도 감지덕지일텐데 5분정도 설명을 들으면 선물까지 준다니 이 어찌 감격적이지 않을수 있으랴! 옆에서는 질세라 EPSON의 홍보요원들이 마이크로 외대 대동제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외부 업체의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 활동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학교안에서 무척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바이다. 대동제때 011과 EPSON의 경우처럼 직접 판매대를 설치하고 마이크까지 사용하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외에도 학교 대자보판을 덕지덕지 도배하는 여행사들, 어학 학원 광고를 우리는 습관처럼 보고 있다. 이제는 그들도 간이 커졌는지 학생들이 붙여놓은 대자보를 떼고 붙이거나 그 위를 광고물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총학생회실이나 학생복지위원회실에 하루만 죽치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학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 하루종일 있으면 아마도 전화 30통, 방문자 3-4명은 충분히 겪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대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흐름은 지난 95년 이후 대학생의 소비잠재력이 재평가되는 과정과 맞물려 크게 나타났다. 95년 이후 무선호출기, 이동전화 등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커다란 규모라는 것이 새삼 밝혀졌다.

대학생 계층의 소비잠재력이란 보급률에서도 말할 것이 없지만 IMF 한파 이후 모든 이동전화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데도 유독 대학생 계층만은 불황을 모르고 꾸준히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그래서 5개 이동전화 회사에서는 학교 주변 가맹점을 독려하고 기를 써서 학교안에 가판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일주일동안 가판대를 설치하고 홍보할 수만 있게 해주면 수백만원대의 돈을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주겠다는 업자들, 제품 판매 개수마다 수만원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업자들은 자선사업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 대학교는 분명 커다란 시장이다. 상시 거주인구만 해도 기숙사나 하숙, 자취를 합해서 수천명은 된다.

우리 학교의 경우 7000명의 학생과 교직원, 대학원생까지 합치면 유동인구가 만명은 족히 넘는다. 이들이 점심 한끼만 먹어도 2500만원(한끼 2500원 기준)이고 학교 식당, 하숙집을 이용하는 3000여명을 제외하고 7000명이 하루 두끼씩 학교안에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밥값만 10억 5천만원이다. 정말 큰 시장이다. 외대, 경희대가 동대문구 경제를 휘어잡을만도 하다. 그러나 과연 대학교가 자본의 논리로만 운영되는 시장인가?

대학생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대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움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다. 기라성같은 전문가들이 모인 대기업 연구실보다 대학교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상업적인 논리를 따라 기업이익만을 위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과 기초적인 학문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 진출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통일을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장이자 현재의 사회를 연구하고 비판해야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대학사회가 그 연구대상에 동화되어 똑같은 논리로 굴러간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세계화의 선봉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일깨야 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침략리역 광장과 같아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외대는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지 핸드폰과 프린터를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한 역할은 백화점과 학교앞 상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문회

〈사회·신방 4 외대문예갈래협의회 의장〉

사진부

공연이야기 -서울 배움터 FBS 가요제

개성·풋풋함 그러나 여전한…

사진부 기자

대학인들의 창작가요축제인 서울배움터 FBS 가요제가 지난 2일(수)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FBS가요제는 지난 79년 외대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HUFS SONG FESTIVAL'로 시작, 그 뒤 타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 올해로 스무번째를 맞이했다.

중앙대 '블루 드래곤', 서울 산업대 '통일아침', 우리학교 '인디고 플로' 등 8개 학교 총 9개팀이 나와 경쟁을 벌인 이번 가요제에는 락, 재즈, 힙합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이 발표돼, 어느 때보다도 '개성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자들 또한 민중가요 노래패, 락동아리, 개인팀등 다양한 음악팀들이 나왔는데, 노래 시작전 트롯 메들리, 모창 등 이들의 장기를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최측에서 중간 중간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외대인상'은 동국대 송은주양과 중앙대 이창남군, '우수상'엔 중앙대 블루 드래곤, 그리고 최우수상은 서강대 '밤새는 사람들'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가 각각 수상했다. '이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와 함께 하는 이 노래들 때문일까야~' 는 가사로 시작되는 최우수상곡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과 노래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수상소감으로 '통곡의 벽을 넘어 날아갈만큼 기쁘다'는 재치 있는 말을 남긴 '밤새는 사람들'은 재작년 대학가요제 수상경력이 있는 노래 동아리 '예밀레'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한편, 심사위원 임진모씨는, "대학인다운 풋풋하고 순진한 목소리와 다양한 음악이 발표된 점들이 좋았다"고 평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예전과 다름 없이 초대가수 윤도현이 떠나자 관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떠서 수상자들이 앵콜곡을 부를 땐 2~30명만이 남아 자리를 지키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연을 보러 온 김동하군(성균관대 경제학부 1학년)은, "가요제에 대한 좋은 인상이 학생들의 관람 예의나 진행상의 미비점등으로 반감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서윤 기자

문화단신

서울

민속악놀이반 '호남우도 판굿'

민속악놀이반의 1학기 정기공연이 오는 8일 5시 노천 극장에서 열린다.

느리고 기교가 많아 풍부한 맛을 준다는 호남우도 판굿을 하는 이번 공연은 좌질굿, 길굿, 양산도 등 굿판 외 북춤, 꼬깔소고 등 개인 놀음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은 강강술래로 마무리 되는데 준비한 술과 떡도 함께 나눠 먹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한다. 회장 류지혁(동학·마인어 2)군은, "고사를 지내며 학교 번영도 함께 기원하며 학생들과 한판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전한다.

영어과, 원어연극 공연

영어과 원어 연극패 예혼은 8번째 Workshop 공연을 지난 3,4일(금) 양일간 개최했다. 원작 '홈치고 봅시다.'를 각색한 'Who am I?'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현대인, 훔치고 훔치다 결국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도둑맞는 현대인을 그리는 줄거리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상대 노래패 맥박, 정기공연 열려

상경대 노래패 맥박이 '당신에게 힘이되는 노래이고 싶습니다.'라는 기치로 지난 4일(금) 8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여기에 우리 친구라는 말' '산다는건 그런게 아니겠니.'등 총 13곡의 쉽고 경쾌한 노래를 위주로 선곡하였다. 공연곡중 잘 알려진 '처음처럼' '바위처럼' '신명'을 엮은 '댄스 메들리', 통일노래한마당에서 민주상을 받은 '반쪽의 기다림'은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이번 공연은 상경대 '정기총회' 안에 이루어져서 상경대 학생들이 하나되는 자리였으며 외대 노래 창작단 '청년'의 축하 공연도 있었다. 공연을 준비한 회장 이영식(상경·경영 2)군은 "요즘 힘들어 하는 학우들에게 밝고 경쾌한 노래로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용인

해무리 '민중가요제' 개최

민중가요 동아리 해무리가 오는 10일 오후 6시에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첫번째 민중가요제를 개최한다. 총 10개팀이 출전해 '사노라면' '편지' '청계천 8가' 등의 노래를 공연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그대가 바로 민중'이다. 회장 임홍실(동학·일본어 2)양은, "민중 생존권 쟁취, 빈민과의 연대 항쟁, 6·10 항쟁 기념의 내용을 가요제 안에 담고 싶다"고 전한다.

또한, 노래 부르는 중간에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그외, 풍물패의 길놀이, 왕산율동패연합의 율동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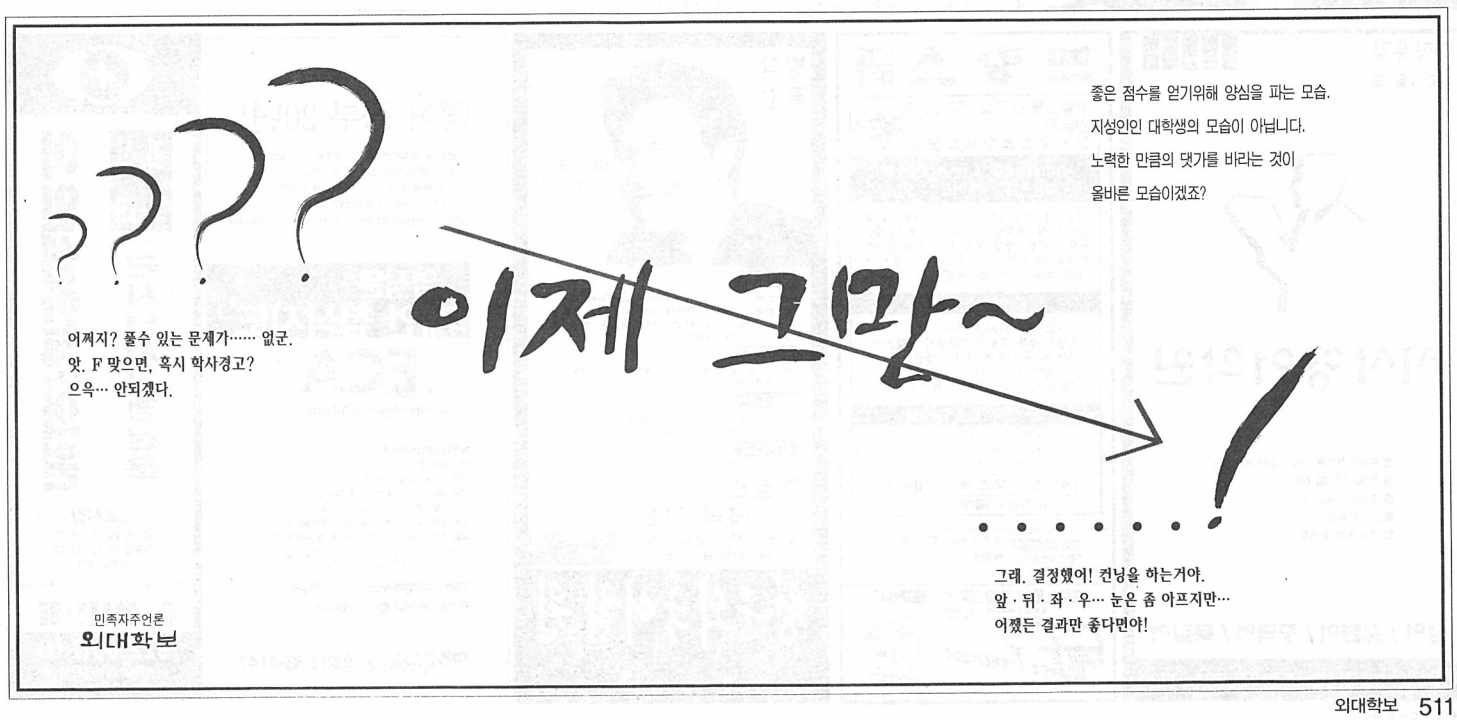
사월문학반 정기시화전 열려

지난 7일(월)부터 오는 11일(금)까지 5일간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문학동아리 '사월 문학반'의 정기 시화전이 열린다. '저 혼자 타는 시'란 주제로 총 30편이 선보일 이번 시화전은 신입생들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자본에 물든 현대인의 삶을 그린 '스물 여섯' 실업자의 고뇌를 다룬 '탈곡 공원'등 시사적 주제작품 6편, 개인주제 24편 등 내용의 다양성도 시도했다. 회장 김정영(자연·화학 4)군은, "소비 지향적이라고 여겨지는 대학문화 속에서 철학, 문학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누리에 '캠퍼스라이프' 사진전

사진 동아리 누리예가 열다섯번째 '캠퍼스라이프' 사진전을 지난 1일(화)부터 4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었다. 매년 학교 풍경, 생활을 주제로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이 전시회에 올해는 총 33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지난주 열렸던 대동제 사진, 산에 둘러싸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사진, 그리고 학생들의 농구경기 장면을 학생회관 4층에서 찍은 사진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방학기간중 인사동 아트갤러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영남위 사건' 투쟁현장 르포

조작사건을 규탄한다

정권, 인권침해 · 증거조작 등 허위사건 유포

무죄투쟁을 국가보안법 철폐 정점으로 만들터

소위 '한국민족민주통일전선 영남위원회' 사건이 10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권의 허위 조작사건을 규탄하며 계속적인 무죄석방투쟁을 벌이고 있다. 편집자

"XX조 000씨 접견, 면회장으로 나와 주세요."

부산 주례구치소의 허름한 대기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지난 2심 과정에서 석방된 이희, 홍정련씨는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요즘은 (구치소) 청장님한테 좀 져주고 사나요?" "오늘은 좀 져줬지."

2평 남짓한 면회장소에 커다란 유리벽을 놓고 마주앉은 홍정련씨와 현재 수감중인 이정희씨는 능숙인 말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다. 그들은 지난 10개월간 구치소 내에서도 말썽(?) 많은 수감수였다. 그래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그들은 구치소 내 인권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생활문제에 대해 당당히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2심이 끝나고 난 후 너무 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겠어요." 면회를 마쳤때쯤 이정희씨는 이후 수감생활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다. 반국가단체 혐의를 공고화시키려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법정싸움을 통해 도 · 감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디스켓 조작 의혹을 여론화 시켜내는 등 '완전무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들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된다.

1시간 남짓, 수감중인 김창현, 임동식씨를 차례로 면회한 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가협)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영남위' 사건 가족대책위원회와 먼저 석방된 5명(이희, 김이경, 홍정련, 천용태, 김성란)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정권이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우려 하는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당국이 제시한 증거품인 도 · 감정을 통한 비디오는 '인권침해'라는 구속자들의 끈질긴 항의속에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증거품으로 제출된 디스켓 또한 공안당국의 조작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천용태씨는 "외국에는 디스켓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할때만 증거로 채택되지만 이번 사건에는 박경순씨 집에 널려져 있던 디스켓만이 증거의 전부"라며 "이는 디스켓 내용을 변경하는 자체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디스켓 파일의 생성날짜가 구속 이후로 나와있다는 점 등이 조작 의혹을 확실케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위' 사건 연루자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김성란씨는 "영남위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에서 그 반민중성까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이를 내세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에 치를 떨었다"라며 올해 안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한다.

"우리의 무죄를 기필코 증명해내고,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정점이 되겠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느껴진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정리 사회부

7기 한총련 의장 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백만청춘과 조국을 얘기하고 싶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지난 28-30일 경희대에서 평화적으로 7기 한총련의 닻을 올렸다. 이에 한총련 의장 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각오, 이후 한총련과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학우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우들이 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권이 규정하는 남한 최대 이적단체의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일까. 출범식 기간 내내 경희대 곳곳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며 기념사진까지 찍는 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7기 한총련 출범식 현장에서 만난 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군은 하얀 피부와 호탕한 웃음으로 친근함을 주는 인상이었다.

한총련의 진로에 관해 설왕설래라는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의 시각은 시종일관 간단하고 명료했다.

"한총련의 상황은 단 한번도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96년 정권의 가공할만한 탄압으로 대오의 수가 급격히 줄기는 했지만, 조직력이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은 놀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내기조차 말도 안되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구속되는 것이리면 당당히 구속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연이어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을 틀어지고 민중들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단련된 진정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한총련의 조직력이 질적으로 강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지난 상반기 한총련 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한총련은 7기 대의원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거치면서 폭력경찰과 맨몸으로 부딪히며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조직적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과의 연대투쟁도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반기 투쟁에 힘입어 이번 출범식이 성대하게 치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총련 출범식은 백만 학생들의 대동의 장이자 7기 한총련이 걸어갈 투쟁방향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물론 정권에서 출범식 장소를 원천봉쇄하며 폭력진압을 자행했지만 이적성은 더 이상 탄압의 구실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개최해 폭력성 시비도 일축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총련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윤군의 고민은 '대중화'라는 화두안에 있었다. "운동의 대중화라는 것은 압도적 다수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총련의 대중화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물론 이적규정입니다. 하지만 일꾼 한명한명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중들을 만나간다면 자주, 민주, 통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일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통한 '운동의 대중화'가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 윤군의 설명이다.

인터뷰 내내 느낄 수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믿음, 한총련 진로에 대한 자신감,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갈 99년 투쟁승리에 대한 확신이 현실에서 어떻게 꽃피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윤군 혼자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학우들이 나를 만들어 준다"는 그의 말처럼 한총련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자신의 바램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루빨리 이적규정이 철폐되어 전국의 백만 학우들과 술자리에서 만나 '자주, 민주,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정리 김경신 기자

변호사들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시국선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화)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파업이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정부는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는지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대응 철회 △노동관계법 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파업권 보장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 국민회의 점거농성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는 211일간의 천막농성에도 불구,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 지난 2일(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 또한 역대 정권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집시법, 악용사례 속출

얼마전 개정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토) 서울 중부경찰서는 개정 집시법 제8조 3항에 의거, "신라호텔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전해투)'의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해투측은 신라호텔측이 집회신고 접수가 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한요청을 했다는 것은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화)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은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 출범이후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투쟁 20일 넘어

징벌방 개선 등 교도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광주교도소 양심수들의 단식농성이 20일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오균(98년 순천대 총학생회장),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 등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24일에는 광주교도소 양심수 20여명 전원이 단식농성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의 장기화로 정오균씨 등은 탈진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도소측은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이들의 외부진료는 물론, 면담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 림 · 타 · 래 <4>

-이동원-

방학특강
개강:7월1일
종로서적 뒤
시사영어학원
■ 방학특강오후 2~4시 강좌 20% 할인
■ 주5일 / 주3일 강의
■ 수강료 마일리지
■ 토요집중반
■ 무료 유학 설명회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종각역 4번출구 종로서적 뒤 TEL.734-2442

프랑스語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만남은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caise
'99년 7 · 8월 학기 개강 : 7.5(월)
BEF I II, MA I II, AP I II, PAN I II, ESP I, 자유회화반, 시사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 · 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학위 준비반, 비디오시청각반, DELF · DALF 준비반, "문법 · 회화 주말반(토) 신설"
'99 알리앙스 주관시험
• DELF · 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 · 유학상담 및 수속대행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99 여름 · 가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eoul ☎ 555-1125, 1126(강남)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caise
APPRENDRE ET OSER LE FRANCAIS

방학특강
언어로! 세계로!
영 어
미인회화(EFL, New Interchange, Free Talk)
한인회화, TOEIC, A TOEFL, 신경향 TOEFL, 영문법
기초 L/C, Screen English, AFKN, 영작문, 영어 독해
Vocabulary, Time/영작
일 본 어
초급, 독해, 일언회화, 각종 시험대비반, NHK 청취
동시통역대학원반
중 국 어
초 중 고급 문법, 초 · 중 · 고급 회화, 스크린 중국어
CCTV, 통역대학원 준비반, 통역가이드 대비반
프랑스어
초 중 고급 문법, 독해, 비디오 청취, 회화
주말반
대폭 개편
토 · 일 100분씩 수업(학습효과 극대화)
• 영 · 일 · 중 · 불 · 독 · 러 •
이용기도 및 사전제할인 20%실시
청문외국어학원
1호선 종각역 종로서적 뒤 738-5151(代)
http://www.chungmoon.co.kr

영어 공부 20년!
10년을 읽고 해석하고, 또 10년을 듣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영어 한 문장 쓰기가...
20년 노력과 열정으로도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영작문입니다.
영작문이 완성되어야 당신의 20년 영어가 완성됩니다.
영작문 개인 첨삭지도
ECA
English Composition Academy
직장인, 대학생 여러분!
☐ 영작 테스트를 준비중이라구요?
☐ 각종 문서도 영어로 작성해야 하구요?
☐ 영문 Fax나 e-mail을 보내야 할 때도 많구,
☐ 교수님께서 영작 리포트를 요구하시기도...
☐ 입시, 승진, 해외 연수를 위해 직문 실력이 필요하다구요?
☐ 글을 쓰듯 정확하고 논리적인 Speaking 실력까지?
초·중·고급 3단계 단계별 6개월 과정.
YBM 시사영어사의 40년 노하우로 한 단어 한 단어 첨삭지도합니다
YBM 시사영어사 (02) 553-4147

이인섭안과의원
라식 · 엑시머
근시난시교정전문
진료시간
평 일:09:30~18:30
토요일:09:30~16:30
공휴일:휴진
http://www.doctor.co.kr/인과/이인섭
부설 재입콘택트 · 안경
922-0017(代)
돈암동사거리 제일은행 3층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새 세기를 하나된 조국으로 맞이한다

민주노총,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성사. 한총련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회담' 추진. 민권공대위 '7·4남북공동성명 27돌 남북공동행사' 추진. 전국연합 남북해외 3자연대 회고모임 개최…. 정권의 탄압에도 아랑곳없이 펼쳐지고 있는 통일을 향한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편집자

한 총련 남북학생 자주교류 모범학교 -광운대 조국통일위원장 우진희 군을 만나

"이북 대학생과의 만남 우리과가 준비합니다"

한겨레 21호

북녘 문화유적 공동답사와 공동학술제, 범청학련 통일축구대회 등 남북해외 3자연대를 통한 자주교류 투쟁을 활발히 벌여왔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올해도 '6.10 남북해외청년학생회담'을 기점으로 자주교류의 움직임을 분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7일 평양기계대학과 공동연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자주교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운대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조통위원장) 우진희(전자물리학과 4)군을 만나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자주교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북에 있는 평양기계대학과 공동연대집회도 펼치고 북한바로알기운동, 민족자주학교 개최, 통일문예 한마당, 통일퀴즈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관한 선입견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적이 아닌 동포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운대 조통위원장 우진희군은 학생들의 '반공'의식을 '연공'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자주교류 운동을 펼치는데 있어 선차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국문과, 공학부를 중심으로 모범단위를 선정, 과자원에서 자주교류 활동을 진행했던 광운대는 현재 '6.10 남북해외청년학생 실무회담'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주체가 '과학생회'가 될 정도로 학생들이 자주교류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단대별 과학생회장들의 간담회를 기초로 준비했던 통일문예한마당은 지난 24일 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신명나게 치뤄진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대상을 차지한 곡은 평양기계대학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평양기계대학에서 '통일오작교'라는 곡을 보내와 광운대 학생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는 우군의 말속에서 활발한 자주교류의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자주교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받지 않는 한민족끼리의 순수한 '자주적' 만남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자주교류를 통해 한민족인 남북해외 전민족이 대단결을 이뤄야 하며, 이는 아직도 이땅의 자주권을 점령하고 있는 외세(미국)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군의 주장이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의 자주권을 쥐고 있으며 현재 전쟁책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세는 우리의 조국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정권도 진정한 통일을 원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밝히며 김대중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생존'의 문제로 통일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민중의 파탄난 생존권 문제도 IMF를 앞세운 외세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 예속돼 있는 정권과 자본에 의해 생겨난 모순이며 이는 결국 '자주'의 문제라고 우군은 강력히 주장한다.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권'을 되찾는 것은 결국 '생존권'을 되찾는 것이며, 이는 곧 '통일'을 의미합니다. '반미자주'를 통한 '조국통일'은 우리의 삶을 위해 결단코 이뤄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김겸신 기자

남 북노동자 축구대회 추진한 민주노총 이규재 부위원장 간담회

생존권과 통일, 동전 양면 같은 관계

지난 4월 27일 민주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오는 8월 10일 평양에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치를 것을 합의, 남북민간교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 평양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직접 북한에 다녀왔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이규재 위원장을 만나 노동자 축구대회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통일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반세기가 넘게 분단된 상황에서 역사의 주인이고,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처음 북과 접촉한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동자들의 남북교류를 통해 통일논의의 기쁨을 마련했으며 이는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동자 축구대회가 갖는 의의와 성과에 대한 이위원장의 설명이다.

'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와 달리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것은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위원장은 "통일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조국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냐 생존권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역량을 통일투쟁으로 많이 쏟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통일을 향한 열기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흔히 김대중 정권에게 대북정책은 있어도 통일정책은 없다고 말들 많이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너 필요한거 내줄테니까 나 필요한거 달라'는 것은 동족간에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해 김대중 정권의 '상호주의' 통일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위원장은 "민중생존권이나 그 외 모든 문제의 근본 모순은 분단이기 때문에 조국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느하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통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라는 소중한 기회를 잘 다듬고 성사시켜,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국통일 운동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김겸신 기자

북한 원산 금강원동기합영회사의 노동자들이 금강산 관광 후 시중호 휴게소 옆 진디밭에서 흥겹게 춤판을 벌이고 있다. 고존시인의 '북한순례기' '산하여 니의 산하여' 에 실린 김광수씨의 사진.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기행기

"반갑습네다. 통일합시다." 평양에 도착하자 남녀노소 구별없이 모여든 인파들. 그들은 동원되어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은 속일 수 없는 법. 그 많은 인파가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우리를 향한 절절한 기쁨과 환대를 표현하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보트를 탄 남녀 쌍쌍들이 대동강을 가득 메우고, 버드나무 사이에 들어선 정자 밑에서 남녀가 오손도손 앉아 얘기하는 풍경. 이렇듯 여유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숙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첫 모습이었다.

북의 동포들은 소박하고 우리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시멘트 공장으로 유명한 한 소도시를 방문했을때 공장 노동자 가족 몇천명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했었다. 그들은 그네, 널뛰기, 윷놀이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공동체 문화도 살아 있었다. 특히 남북이 얼싸안고 진행된 씨름대회에서 남측의 조준호 동지가 북측대표를 이겨 '황소'를 선물로 받았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참 흥겹고 즐거운 추억이다. 또한 단군릉을 비롯한 여러 유적지를 너무나 잘 가꾸고 보존해놓은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어느날 숙소에 돌아오니 평양의 대학생 대표 20여명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남한 대학생들보다 앳되보이는 그들은 활기찼고, 즉석에서 시도 그렇게 잘 지을수가 없었다. 그중 한 대학생이 "재가 어렸을적에 수경이 언니가 있었지요. 그때 같이 플랑카드도 들었었어요. 남에 가면 수경이 언니한테 꼭 안부 전해주시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임수경이 방북했을때 일곱살이던 꼬마가 지금은 김일성 종합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17곱살 처녀로 성장해있었다.

방북기간 내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북한 경제난의 실상이었다. 북녘의 동포들은 의외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예요. 4년 연속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이나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요"라며 자신들의 힘든 처지를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처지를 비관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합쳐 난관을 웃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들은 또 다른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정리 사회부

전 국연합, 남·북·해외 공동행사 추진

동족간 소박한 만남마저 불법(?)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지난 1일(화) 중국 용정에서 '남북해외 통일운동단체간의 문익환 목사 회고모임'을 진행했다. 앞서 전국연합은 지난 4월 29일 회고모임을 남북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남한당국에 의해 불허됐었다.

용정에서 만난 '남북해외 통일운동단체 대표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가 분열된 후 처음으로 남북해외 통일운동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동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에 국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갈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민족적 화합이었다"고 이번 회담성사의 의의를 밝혔다.

전국연합 대표단은 "외세에게 의존하여 통일을 얻을 수 없다.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군사권을 쥐고 남과 북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오늘도 이권을 즐기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극복하는 '자주',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오천년 단일한 피를 합쳐 민족의 이름으로 크게 뭉치는 '민족대단결', 자주와 민족대단결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며 조국통일의 의지를 밝혔다.

회담을 성사시킨 대표단은 지난 6일(일) 귀국,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긴급 체포되었다.

이에대해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씨는 "동족끼리 서로 만나려는 소박한 인정조차 이해해주지 않고 강권으로 막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라고 김대중 정권의 반통일적 행각을 규탄했다.

사회부

'99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99년도 우리대학교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예비군은 학과(대학원생은 각 대학원)게시판에서 본인의 훈련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비상계획관실(예비군 본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1. 대학(대학원)학과별 교육일정

일자	교육대상학과	훈련집소
6.3(목)	사범대학 전체, 음악대학 대학(음악대, 발레대학, 미술대학, 이학대학, 태권대학, 배드민턴대학, 티대학)제2~7년	금곡훈련장
6.4(금)	동양의대학 의전대학, 사회과학대학 전체, 법과대학 전체, 심리대학전체제1~7년	(동일로7에비군훈련장)
6.7(월)	사범대학 전체, 대학원(일반, 경영정보, 통·법학, 교육, 세계경영, 경제과학, 국제지역) 전체, 정교, 장·단기(해사 전체 제2~7년	
6.8(화)	재활학, 대학원, 보건대(보건도 전체지) ※소집집합 대상자	

2. 교육대상

소집집합(4시간) → 정교, 하사관, 병(일반하사 포함) 1년차('98년도 전역자)

기본교육(8시간) → 정교, 하사관, 병(일반하사 포함) 2~7년차 ('92~'97년도 전역자)

3. 교육훈련 제외대상자

가. '99년도 전역예비군

나. '99년도 주민등록지에서 8시간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보충교육 훈련에 불참사실이 없는자

다. 전역8년차 이상(정교, 장·단기하,병)학생예비군

4. 유의사항

가. 대학(대학원)학과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나. 수송버스 이용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바람.

다. 개별입소시에는 07:50까지 금곡훈련장(미금시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것.

라. 자가차량 주차공간없음(일의 주차시 위반차량 적발 및 견인)

마. 대중교통 안내 : 청량리→금곡 165-3(일반), 천호동→금곡 1-3(좌석, 일반), 강변역→금곡 9-1(좌석)

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필히 휴대할 것.

사.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홍보수단(학과게시판공고, 교내 전용게시판 공고, 외대학보 게재, 교내방송등)으로 대체되니 착오없기 바람

※지연도착자(08:00이후 군부대 도착자)와 복장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일치되지 않은자)는 귀가조치 및 불참 처리 됨.

※비상계획실 사무실이 미네르바동산 가건물(콘센트)에서 학생회관 건물 107호(학생처 앞 구충원부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1999. 5.

서울캠퍼스직장예비군연대장

1999학년도 후기 대학원(주간) 신입생 일반정형 학생모집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어문계열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아프리카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동남·남아시아어학(태국어, 마·인어, 베트남어, 인도어), 동유럽어문학(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유고어), 언어학, 북유럽어학, 국어국문학

인문계열 - 철학, 사학

사회계열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자연과학계열 -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환경학, 미생물학

공학계열 - 컴퓨터공학(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전공, 시스템통합전공), 전자·제어공학

2. 지원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1999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학과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후 소정의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3. 모집인원 : 각 학과 약干명
4. 원서교부 : 1999년 6월 7일(월) ~ 1999년 6월 16일(수)
5. 원서접수 : 1999년 6월 14일(월) ~ 1999년 6월 16일(수) 17시까지
6. 전형일시 : 1999년 6월 26일(토) 오전 10시
7.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02-961-4104, 962-7117)

1999. 6.

한국외국어대학교

취업관련 도서신청 안내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관련도서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면 참고·반영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가. 학생취업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취업정보전산망(www.pic.hufs.ac.kr)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의 '취업관련도서신청' 이란 제목으로 신청
다. 전화로 신청(☎ 서울 4466, 용인 4040)

2. 신청마감
1999년 6월 30일 수요일

1999. 6.

학생취업정보센터소장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진로카드 작성 및 제출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졸업(예정)자의 취업진로카드를 다음과 같이 교부 및 접수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 '98학년도 후기('99년 8월)졸업 예정자
- '99학년도 전기('2000년 2월)졸업 예정자
* 기졸업자 중 미취업자도 제출 가능함

2.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터 : 학생취업정보센터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4436)
-용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4040)

3. 준비물 : 증명사진(3cm×4cm) 1매

1999. 6.

학생취업정보센터소장

김민수 서울대교수 재임용 문제 보도

'재임용' 문제 다시 불붙다

친일교수 행각 밝힌 '죄'로 재임용 탈락 의혹

97년 덕성여대 한상권(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학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교수재임용문제는 지난해 8월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문제에서 드러나듯 우리학교에서 역시 예외일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는 11일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교내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의 친일행적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문연구와 학생지도에 전념해온 원고에게 '연구실적 평가미달'이라는 허울을 씌워 교수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4년 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지난해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내고서도 '연구실적 평가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했으며 이후 학계에서는 "김씨가 지난 96년 연구논문에서 미대 원로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한데 따른 보복인사"라며 반발해왔다.

한편 지난 4일(금) 서울대학교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김민수 교수의 복지과 학문의 자유를 위한 공청회가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오종환(서울대 미학과), 성완경(미술평론가, 인하대 미술교육과 교수), 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김현철(서울대 건축학과), 원용진(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유지나(동국대 연극영상학부) 등의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민수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위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교수의 연구실적물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李箱 詩의 혁명성'을 면밀히 검토한 학술단체와 학계의 관련인사들은 한결 같이 김 교수 논문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김교수가 재임용에 탈락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학문외적 요인이 있다고 추측된다. 우리는 그것이 흑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키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거하고 멀리하려는 우리 학계의 부끄러운 일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교수재임용 문제는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의 예에서 나오듯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이사회와 기득권층의 자신의 기반유지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큰 편이다.

더구나 사학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문제가 국립대에서까지 그것도 김민수 교수의 주장대로 '선배 교수의 친일행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더욱 교수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들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교수재임용(대학교원기간제임용제),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재임용제는 위헌이다"

교수재임용제가 법률상으로 계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별문제없이 재임용된다. 형식적 법 논리상으로만 보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관계가 종료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재계약(재임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계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재임용제도는 운영되는 현실과 법리적 해석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이다. 기간제임용제를 교육부나 사법부가 임기제로 해석할지라도 각 대학의 현행 운영실태는 심사제인 셈이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계약제라 할지라도 심사제로 관행화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임용제가 형편없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문제화되지 않은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수들이 재임용탈락이 두려워 사전에 임용권자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는 대학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은 상상도 못하며 대학의 지치력과 자율성은 현저히 강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임용권자가 재임용탈락을 무기로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외원면직의 형태로 강단을 떠나거나 타대학,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 이직의 배경에는 재임용탈락의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다.

재임용탈락이 확정되면 임용권자는 '교수자질부족', '교원품위손상', '근무자세불량', '학생소요선동', '연구능력 부족'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재임용탈락 교수를 대학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재임용탈락은 사회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기도는 쉽게 관철된다. 반면 재임용탈락 교수들은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횡포에 맞서 싸울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다. 연구실을 계속 사용하거나 잠외강의 또는 천막강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인 저항조차도 임용권자가 사법부에 제소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재임용탈락을 둘러싼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계약제교수를 선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약제는 자동해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임용 당초부터 재임용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학시장의 문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무 저항없이 빠른 속도로 각 대학으로 전파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가 2002년부터 교수연봉제를 실시하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국 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③, 교육부, '98.11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수연봉제가 실시되면 근무기간이 계약조건에 명기되므로 재임용탈락을 둘러싼 시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현재 일고 있는 계약제와 교수연봉제는 교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교수들 운신의 폭을 옥죌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서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자치력과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길 밖에 없다.

문제는 이미 부당하게 재임용탈락된 교수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간제임용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1998년 7월에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재판관 9인중 4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기간임용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임용 거부사유와 거부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권한을 일면권자인 사립학교법인과 총 학장의 자유재량에 맡긴 결과 임면권자가 기간임용제를 악용하게 된 것으로서 기간임용제가 악용될 위험성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결정문 98.7.16).

기간임용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의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함께 반드시 규정하여야만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조항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만들기 위해 법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인들은 이들의 외롭고 의로운 싸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재임용탈락된 이야말로 대학사회의 활력소이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상 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교수재임용 문제를 해부한다.

① 임용권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데에서 비롯
② 임용권자가 제임용 탈락을 무기로 횡포
③ 재임용 탈락된 교수에게는 '교수자질 부족' '교원품위 손상' '학생소요선동' '연구능력 부족'이라며 부정적 이미지 유포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문제 고찰

학문적 양식의 종언

지난 해인 1998년 8월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었다는 소식은 디자인을 포함한 미술학계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충격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김민수 교수의 업적이나 강의 성과를 생각해 보면 그가 수준이 미달되는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논문 "시각예술의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문학적 맥락을 뛰어넘어 시각예술의 텍스트로 바라본 이상 시"는 우선 미대측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분야의 많은 실력있는 학자들로부터 훌륭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김민수 교수의 위 논문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것은 지금까지 문학의 영역 안에서만 해석되어왔던 이상의 시에 대한 시각예술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그 분석의 깊이는 김민수 교수의 뛰어난 학문적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타난 조형적 관점에서의 이상 시에 대한 탁월한 분석은 김교수가 단순히 실용적인 디자인의 어떤 한 분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철학적·미학적 이론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화니 국제 경쟁력의 시대니 하는 요즈음에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도 도제식 전수로 익힌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 넓은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는 요즈음에 아마도 미술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요구되는 지식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미술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떠들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미술계의 빈약한 현실에서 과연 서울대 미대측은 어떤 종류의 미술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자가 미술사와 그것에 관련된 철학적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인 이러한 논문이 재임용 심사에서 학문적 수준의 미달로 탈락되었다는 미대측의 해명은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일 김교수의 논문이 디자인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심사위원들의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본인은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선입관에 의해 심사를 하였거나 무식의 소치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시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히 조형예술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분석의 깊이나 철저함에 있어서 이 논문이야말로 학술적 논문의 전형인 것입니다.

민일 서울대학교 당국이나 미술대학에서의 미술에 대한 이해가 김 교수의 논문을 미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장래에 매우 불행한 일이며, 서울대학교 당국은 이 문제가 행정법원에 제소되어 이미 서울대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이 사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오 종 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까치발 풍물패

○…소음·공간 문제로 힘들어하던 풍물패, 드디어 구 구내서점 자리에 연습공간이 마련됐다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80평 공간 중 반을 뚝 떼어 학교 창고로 사용해야 한다며 나머지 40평만을 이용하라고 했다는데…

200 풍물잡꾼이 0.5평씩 차지하고 까치발 딛고 치면 되겠군……

〈장〉

○…옷 로비 사건, 여당 대선 참패등을 보며 부르고 싶은 노래 한자락

5공시절 전두환은 광주 죽이고
6공시절 노태우는 학생 죽이고
문민독재 김영삼은 경제 죽이고
너무한다 김대중은 다죽이겠네

〈윤〉

○…'김영삼 청문회' 컴퓨터 화면 보호기 게임이 있다.

영삼 얼굴에 계란을 던져 맞히면 국민 지지율이 올라가고, 빗나가면 국민 스트레스.

괜소 '김영삼 청문회' 게임, 양궁, 사격, 3박자를 두루 갖춘 박의정 할아버지 1미터 거리에서 영삼의 얼굴에 페인트 달걀을 쐈다.

통쾌함에 국민 지지율이 올라갈 무렵, 상황 파악, 주제 파악 못하는 김영삼 망언 한마디.

"갱제=디제(DJ)=독재다"

〈우〉

○…뒤 늦게 정부가 바람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조처를 내렸다. 그런데 농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에 대해 수거하지 않는 행정편의 주의를 보인다기에 우리크로리클자 분노의 한마디 '농림부' 다이옥신으로 다이 시킬수도 있다.

〈정〉

'다이' 옥신

비둘기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빛모습이 영화창작 기금 마련을 위한 일본영화제를 합니다. 많이들 보러오세요.
때 : 7일(월)~11일(금)
곳 : 도서관4층 세미나실

〈빛모습〉

· 특강합니다. 불어 이력서 작성법을 모르시는 분들 모두 오세요.
때 : 10일(목) 늦은 2시
곳 : 교양관 414호

〈불어과〉

· 영화회화반 V.E.C 1학기 종강총회가 열립니다.
한 학기를 정리하는 자리이니 꼭 참여해 주세요.
때 : 8일(화) 늦은 5시 30분
곳 : 학생회관 209호

〈영어회화반V.E.C〉

□ 축하합니다

· 문익환 목사 용정 5주기 추모행사를 축하합니다

〈해무리〉

□ 잘 다녀오세요

· 광수형, 효진형, 재근형, 용준형 군대 잘 다녀오세요.
오늘 가신 분들에게는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구여.
방학때 가실 분들에게는 미리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호빵맨〉

· 지환아!
군대 잘 다녀와라. 너의 자리는 언제나 그대로인거 알지?
그동안 수습짱 하느라 수고했다.
우리는 영원히 "청년수습8"이다!!!

〈61기수습기자일동〉

이문벌

□ 알립니다

· '호남우도 판굿 있습니다' 우리 함께 놀아 봅시다.
때 : 6월 8일(화) 늦은 5시
곳 : 노천극장

〈민속악놀이반〉

· 독일어회화 졸업시험보세요. 예비군훈련자만..
때 : 6월 9일(수) 늦은 5시
곳 : 본관 309호

〈독일어과〉

· 영어과 사물함열쇠 찾아가세요.
영어과 과방으로 쭉쭉 찾으러 오면 됩니다.
문의)016-219-5909

〈영어과〉

· 서반어과 장학조교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학점 3.0 이상
pc에 능통한 자
서어회화에 자신있는 자
과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자

〈서반어과〉

□ 찾습니다

· 텔레토비사진이 들어 있는 남색천지갑을 찾습니다.
저 자취합니다. 방값 입니다.좀 모자라도 받겠습니다.
잃어버린 곳은 도서관 1층 인지자관기 옆입니다.
그 근처에서 습득하신분 돌려주세요.
연락처) 019-245-8702

〈최예진〉

· 6월 1일 도서관 5층에서 잃어버렸구요. 찾는 물건은 빨강색 돈지갑입니다. 습득하신 분은 1층에 꼭 맞겨주세요.
연락처) 011-9591-5527

〈지갑주인〉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서울, 시청각 시설 방학중 폐쇄

공간확장 공사로 … 도서관은 이용가능

서울배움터 시청각 교육원에서 시설확충 공사관계로 방학기간 동안 시청각 시설을 폐쇄한다.

이번 공사는 시청각 교육원내 행정 사무실 축소와 외대교육방송국 이전을 통해 학생관련 시설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설은 모두 2층으로 내려보내고 3층은 음향 및 영상도서관으로만 이용하기로 하여 공간재배치를 통한 시설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 시청각 교육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학기간에 시청각 교육원에 있는 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도서관 지하에 일부 영어 교재만 비치한다.

시청각교육원은 음향영상도서실 및 케이블 텔레비전 좌석이 모두 124석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시설을 한곳에 모음으로서 학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장래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각 교육원 교육과장 서은택씨는 "지원 시설과 학생시설을 통합함으로서 공간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번 공사의 목적을 밝혔다.

서울, 취업특강 열려

학생취업정보센터는 오는 11일(금) 2시부터 인문관 대강당에서 취업특강을 연다.

이 날 특강은 신현덕(엘리트뱅크 대표)씨가 강사로 나와 "IMF 시대의 채용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취업패턴의 변화와 준비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99취업길라잡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용인, 각 과 종강총회 열어

체코어과

체코어과 종강총회가 8일(화) 오후 5시 30분, 교양관 302호에서 열린다.

한 학기동안 진행된 등록금사감 투쟁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후 △1학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방중사업 계획 등을 논의한다.

방중사업으로 크게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과 전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회는 농활에서 20명 이상의 참여를 유도해 방중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헝가리어과

지난 7일(월) 열린 종강총회에서는 △1학기 예·결산 보고 △등록금사감투쟁 현황 △졸업생 송사등이 진행됐다.

학회장 및 과 집행부들의 지세한 예·결산 보고 후 등록금사감투쟁과 관련 경희대 등 다른 학교의 장학금확충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학교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과학생회장 조이상(3)군은 "모두들 1학기동안 수고했다"며 "2학기때 행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어과

1학기 종강총회가 지난 3일(목) 교양관 401호에서 159명중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자리에서는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 △동구어대로의 이전 △학부제로의 변환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4일(금)에 있었던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고 김경환(91)군의 추모식과 묘비이전을 논의한 후, 박정주군을 2학년 과대표로 재선출했다.

특히 동구어대로의 이전과 학부제로의 변환에 대해서는 23일(수) 열릴 공청회 후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어과

지난 3일(목) 교양관 213호에서 열린 종강총회의 주요안건으로 △고 이용묵(97)군의 식수사업 △서울배움터·용인배움터·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학술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재 2회 연속으로 발을 수 없는 우정장학금 재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어과

지난 2일(수)에 진행된 일본어과 종강총회에서는 의결안건 없이 보고 형식으로 △1학기 회계결산 △학과장과의 간담회 △등록금사감 공탁상황과 학교측과의 협상내용 등을 공유했다.

이와관련 과학생회장 김민식(4)군은 "홍보기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석율이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2학기 때에는 더욱 분발해 과 전체 학생들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맥박' 공연 열려

상경대 노래패 '맥박'이 지난 4일(금)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8번째 정기공연을 열었다.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치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통일노래한마당에서 민주상을 받은 '반쪽 기다림'과 외대노래창작단 '청년'등의 축하공연도 있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정효정 기자

얼터너티브 카니발을 준비한 유다영양을 만나

이사람

"사회적 금기깨는 반역의 공간 만들고 싶다"

얼마 전 서울배움터는 2박 3일간의 대동제 행사가 열렸다. 대동제에는 일일 주점 노래 한마당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동제 행사에 대해 주류만의 문화, 사회적 대세의 문화만 다뤄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일(수)과 3일(목) 열린 얼터너티브 카니발은 이처럼 비주류의 문화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몇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여 준비한 행사이다.

얼터너티브 카니발을 준비한 유다영(서양·영어 3)양은 행사의 목적에 대해 "사회적 금기를 깨는 적극적인 반역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대안적인·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인디문화, 교육문제, 청년고용실업문제, 성의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행사기간 중 '인디문화와 하루 놀기'시간을 가지고, 마광수 교수의 강연, 독립에니메이션 상연회 등을 진행한 유양은 "토화지와 크레파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천 인디밴드음악을 들으며 드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발표하는 등 주류 행사와 차별성을 가진 행사를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밝힌다.

"비록 소수였지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친해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또 새내기들의 참여율이 높아 보람을 느꼈어요."라고 행사를 진행한 소감을 밝히는 유양은 특히 "2일(수) '하루해보저'다방을 통해, 여성가수 음악을 계속 들려주고, 영화도 보여준 후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FBS가요제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음에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점은 인상깊었습니다"라고 행사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유양은 인디문화, 성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교육이나 청년실업문제는 준비하지 못한 점이라고 밝힌다. 유양은 "시간이 촉박했고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기획단이 준비하지 못했다"며 다음 얼터너티브 카니발때에는 많은 준비를 통해 그런 주제도 다뤄 보고 싶다고 내년에는 더 좋은 얼터너티브 카니발을 기대해달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양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요즘 대학문화가 너무 흥청망청 노는 것에만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주류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문제나 동성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취업관련 도서 신청받아

학생취업정보센터는 취업관련 도서를 30일(수)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취업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1층 학생취업정보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전화 서울)4464 용인)4040

행정학과, '제자의 날' 행사

10회 행정학과 '제자의 날' 행사가 오는 9일(수) 5시 대학원생식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스승의 날에 대한 보답으로 행정학과 교수들이 선물을 마련한데서 시작됐다.

이 날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퀴즈대회, 팔씨름, 기념촬영 등을 진행한다. 행정학과 학생회장 이상훈군(사회·행정 2)은 "정체되어 있는 과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외무고등고시 설명회 개최

외무고등고시설명회가 외무고시연구원 주최로 오는 9일(수) 6시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날 설명회는 외시 합격생들이 경험했던 시험준비방법등을 공개한다.

또한, 외무고시연구원에서 준비한 입시자료도 나누어 준다. 외무고시연구원심장 김찬우군(서울대대학원·1학기)은 "외시를 준비하면서 막연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국제법학회, 대북지원 성금 전달

서울배움터 국제법학회에서 지난 4일(금) 민간대북지원단체인 JTS에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동제 기간동안 운영한 주점 및 사진전으로 얻은 수익금 742230원을 JTS에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성금은 북한 어린이에게 이유식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제법학회장 이재윤(법·법학 2)군은 "지난 해 남북기본 합의서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북한에 관심을 두게 되어 이같은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축제기간을 맞아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좋은 일에 쓰라며 돈을 더 주신 분들이 많아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생협, 여름어학연수 용인에서

제11회 여름 어학연수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주최로 오는 7월2일(금)부터 8월13일(금)까지 용인배움터 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어학연수는 예년과 달리 회화와 작문, 언어실습 강의 이외에 선택반이 운영된다. 선택반은 토익, 토플, 팝송, 제2외국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체육대회, 말하기(speech)대회, 초청강연, 연수인의 밤 등을 열어 참여한 학생들간의 교류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협학생위원회 위원장 신용선(동구·헝가리어 4)군은 "학내 홍보가 부족해 우리학교학생들보다 다른학교 학생들의 신청이 더 많다"며 "방학때 전문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내전화 4153

중한일, 경제무역 비교사전 출판

우리 학교 출판부는 중한일 경제무역용어를 비교한 사전을 출판한다.

우리 학교 교수였던 유세야씨가 지은 이 책은 중국에 투자 계획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사전에서 볼 수 없는 경제 용어를 수록했다.

출판부측은 중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의 특색으로 꼽았다.

용인, 원맨다큐 프로그램 진행

외국학 종합연구센터는 원맨다큐 프로그램을 연구센터 영상문화실에서 7월 한달간 진행한다.

일주일에 3번(월, 화, 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촬영감각을 익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강의료는 40만원이고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지원받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 희망학생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연구동 행정실 조관연박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전화) 0335 -330 -4807

1999학년도 후기 세계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야간)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1세기 Global Business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위탁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가. 석사학위과정 : 각 학과 전공별 00명
   나. 연구·위탁과정 : 각 학과 전공별 0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 석사
   국제통상학과 : 해운경영전공, 무역경영전공
   국제경영학과 : 인사조직전공, 마이케팅전공, 국제경영(IB)전공
   국제금융학과 : 보험전공, 증권금융전공, 재무·회계전공
   정보관리학과 : 경영정보(MIS)전공, 경영과학(OR)전공
   나. 경제학석사
   국제통상학과 : 국제경제전공, 지역연구전공
3. 전형방법 : 가. 석사학위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나. 연구·위탁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6월 1일(화) 부터 1999년 6월 23일(수)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5. 전형일시 및 장소 : 1999년 6월 26일(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6. 입학자격 : 4년제 정규대학 (기타 교육부 인정대학) 졸업자 및 1999년 8월 졸업예정자, 학부전공 에 제한없음.
   (단, 위탁과정은 고등학교졸업자 이상임)
7.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5매 부착)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성적증명서 (전학년) 1통
8. 특기사항
   가. 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전공(전문가 과정)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함
   다. 국가공무원 및 군·검, 각급학교 교직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라. 재학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재학생의 25%이상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음)

본 세계경영대학원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하는 꾸벅인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영대학원장

*인터넷 : http : //www. hufs.ac.kr/ibhak-main. html

199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야간)

1. 모집과정 : 교육학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전공 (20개 전공) :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국어교육, 상업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일본어교육, 교육행정, 서반아어교육, 철학교육, 전자계산교육, 역사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일반사회교육
3. 전형방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 (금)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5. 면접일시 : 1999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본 대학원 소정양식, 사진(4×5Cm) 4매 부착)1부
   ②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대학출신자는 국문공증서를 각각 필히 첨부) 각 1부
   (1999년 2월이후 졸업자는 교육부 학사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③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는 필히 제출)
   ④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현직교사는 필히 제출)
7. 특전
   ① 현직교사(시간강사 제외)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단, 기타장학금과의 이중수혜는 불가함)
   ② 현직교사(시간강사 포함) 및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됨
   ③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④ 현직교사가 학부와 다른 전공으로 입학후 졸업시에는 부전공자격을 부여함
   ⑤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 초등과정 00명, 중등과정 00명
2. 수업연한 : 0년제 1년
3. 지원자격 : 초등·중등 2급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사
4. 수료 후 자격증 취득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5. 전형방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면접일시, 제출서류는 석사학위과정모집과 동일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과 (TEL. (02)961-4116, 963-6681)

교육대학원장

*인터넷 : http : //www. hufs.ac.kr/ibhak-main. html

1999학년도 후기 정책과학대학원 신입생모집(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 각 학과 00명
   나. 연구(위탁)과정 :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가.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나. 환경정책학과 - 환경정책전공, 환경감사전공
   다.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라. 신문방송학과 - 신문전공, 방송전공
   마.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3.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99. 6. 1(화) ~ 6. 23 (수)까지 14:00부터 21:00까지
5. 전형일시 : '99. 6. 26 (토) 14:00
6. 합격자 발표 : '99. 7. 6 (화) 12:00
7.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나. 명함판 사진 4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 성적증명서 (전학년) 1부
   마.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8. 장학제도
   가. 국가공무원 (군·검포함) 소정의 장학금 지급
   나. 재학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지급
   다. 본 대학원 총동문회 장학금 다수 지급
9. 기타사항
   가. 토요일 휴무함
   나. 문의처 : 정책과학대학원 교학과 (TEL. 961-4093, 962-3650)

정책과학대학원장

*인터넷 : http : //www. hufs.ac.kr/ibhak-main. html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실시

1999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시험기간
   가. 1999. 6. 15(화) - 6. 21(월) … 5일간
   나. 언어실습 및 회화시험도 시험기간내에 실시하며,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담당교수 재량으로 필답고사, 과제물 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유고결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1999. 6. 22(화) - 6. 23(수) 해당대학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9. 6. 28(월)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B'까지 인정(학칙 제36조)
   ※ '99. 6. 2(수)자 "추가시험 성적제한 : A'이하"는 "B'까지 인정"으로 정정함.

1999. 6.

교무처장

서평-터키소설 '새로운 인생'을 읽고

인생을 바꾸는 한권의 책

'풍부한 이미지 조직 시도' 다양한 즐거움 제공

한 권의 책을 읽고 모든 인생이 변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까? 모든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소설이나 다른 예술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내 주위에도 있다.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친구 중의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때 『타임 머신』을 읽고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그 정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한명 역시 어렸을 때 '소공녀'를 읽고, 소공녀의 가난하고 초라했던 부분에 대한 서술은 그냥 지나치고 소공녀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부분을 수백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항상 꿈꿔 왔다고 한다. 물론 내가 위에서 언급한 친구들은 성년이 되어 웃으며 이러한 것들을 미소지으며 이야기 했지만 나는 그녀들이 여전히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의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다.

17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의 언론이 마치 월계관을 씌워주듯 선사한 모든 찬사를 따낸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 (Orhan Pamuk, 1952-)의 소설 '새로운 인생'(필자역, 민음사, 1999)은 바로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이나 에코의 '장미의 이름'처럼 가공의 '책'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형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책'의 비밀을 좇는 지적(知的) 추리를 통해 벌어지는 소설 양식 실험에서 작가 특유의 빛나는 개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한 아름다운 여자와 한 권의 신비스런 책을 찾아가는 형이상학적 추리이다.

파묵이 그려낸 '새로운 인생'은 주인공이 읽은 소설의 제목이자,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책 한권을 읽고 모든 인생이 바뀐다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에서 거칠고 생소한 나라에서 길을 인도해 줄 안내자를 찾고 있다. 여기에서 안내자는, 이 소설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책'이다. 주인공 오스만(Osman)은 그 책을 읽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갈림이 되어버린 '충만한 순간'에, 즉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랑', '모색', '죽음' 등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층위들은 '새로운 인생'에서 어떤 철학적 차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인 조직은 독자를 철학의 미로(迷路)로 끌어들이는 정도의 깊이는 아니다. 또한 '밝음'이라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택하여 독자들의 정신을 가볍게 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 '빛'이라는 요소는 1장과 2장에서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철학적이라고 특징지었던 문제들은 책장을 넘길수록 깊어지고, 여행이라는 행위와 이 행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독자들을 혼란케하는 모호한 분위기로 나타난다.

이 소설은 '책'을 그에게 소개한 여자 자난에 대한 사랑, 그 '책'과 '천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 여행에서 본 마을들, 교통사고들, 자난의 애인을 죽이는 오스만 그리고 평범한 도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자하는 순간 교통 사고로 죽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독자는 여러 장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버스 여행을 끝없는 잡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작가는 버스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이 소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 '정신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들, 인물들, 장소 같은 요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버스 여행에 동반하는 독자는 어느 순간, 옛 인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실현시킬 어떤 실마리를 찾을지 모른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은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독자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다니고 있는 공과대학에서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이성을 혼란 시키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얼마전에 읽었던 책과 주위의 영향으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살고 있는 장소를 바꾸게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결국 주인공은, 끝이날것 같지 않은 여행을 통해 호기심을 풀고자 한다. 주인공의 이러한 면은, 단순히 위기 수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 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이나 초조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의 이 '불안한 심리상태'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죽음에 연유한다. 책과 죽음, 이 두 요소는 모두 사실적인 요소이다. '책'은 평범한 물건이지만, 사람들에게 멋진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매체이다. 이에 반해 '죽음'은 상상물도 아니며 그 무엇보다도 사실적인 것이다.

주인공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부분들은 책에서 받은 영향과 혼적 그리고 인상들이다. 주인공은 처음에 책에서 받은 영향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모색의 길을 나선다. 모색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들은 현실에 속해있다. 작가 파묵은 예술가적인 상상을, 책에서 나오는 사실과 현실 세계에서의 사실을 동일시시켜 문제의 논리적인 설명을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소설이 그 어떤 다른 장르와 구분되는 부분은 절대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의 서술이 아니라 해석이 자유로운 매체라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에도 물론 "사실"도 있고 "허구"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을 노련하게 허구화 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주인공도 책을 읽고 독자들도 책을 읽는다. 주인공이 읽었던 책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독자는 주인공이 읽었던 책, 또는 책의 영향으로 쓴 소설을 읽는 셈이다.

작가는 작가 자신의 말처럼 '모든 것을 연상 시키는 소설'로서의 '새로운 인생'에서 매우 풍부한 이미지들의 조직을 시도한다. 상응하고 대립하는 상징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들에 독자들은 우선 혼란을 느끼겠지만, 작가의 회화적 감수성으로 구축된 공간으로 유인된 독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상상이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문학에서는 요즘 소설이 일종의 놀이로 변해 버렸다. 오르한 파묵은 작가와 작중화자가 거의 상응하는 관점에서 '놀이'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독자들을 놀이에 초대한다. 서술 구성에 첨가된 '놀이'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즉, 미학적 즐거움과 퍼즐 같은 놀이, 아이들의 수수께끼처럼 궁금증을 갖으며, 추리 소설처럼 흔적을 찾으면서 소설은 완성된다. 이는 어쩌면 지식이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컴퓨터에 축적되고, 책을 읽는 대신에 텔레비전을 보는 이 시대에 문학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설에 대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문학가들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징적으로 행위와 참여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문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르한 파묵은 그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글쓰기의 행위에 참조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인생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에 해당된다. 그는 작품에서 잠시 멈춘채 종종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는 오르한 파묵이 독자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 텍스트들을 주의해서 읽기를 원하는, 실마리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번한 참견은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작가의 자의적인 선택에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으며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가와 그것의 현실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독자의 상상력 사이의 어떤 타협 내지는 묵계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파묵은 이 소설의 주요 모티브를 형성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 그리고 모두가 다 도달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인생'에 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이 소설을 끝낸다. 독자들은 다만 작가가 실마리로 제공한 수많은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통해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을 뿐이다.

철학적 상상력을 지닌 독자라면 오르한 파묵의 예민한 감수성과 자기 성찰적인 지성, 내면 지향적인 태도와 심층의미 탐색을 위한 그의 진지한 작가 정신을 그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난 아
〈터키어과 강사〉

사진 수필

아들의 전화를 받고 광주에서 오늘 얼무김치를 담아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한테서 김치를 받아야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서 받는 김치보다 내가 직접 만든 김치를 우리 아들, 조계사에서 양심수 석방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무기한 농성하고 있는 아들 · 딸들에게 먹이는게 더 좋습니다.
나는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청년학생들이 내 자식들이니…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300일을 맞아 열린 일일찻집에서
정효정 기자

독 · 자 · 만 · 화

제목 : 복제인간에의 경고

박영철
〈인문학부 1〉

총동문회 개혁을 바라는 서울배움터 33대 총학생회 입장

지난해 우리 외대 구성원은 박승준을 비롯한 구재단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를 개혁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우리 외대인의 노력은 학교의 발전과 화원개혁을 이루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대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학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며 외대 구성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명문 대학의 위상을 가슴을 품고 외대를 졸업하신 6만여 동문들 또한 마찬가지이라 생각합니다.

외대 총동문회는 6만여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외대인의 구심체입니다. 그래서 사회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총동문회는 박승준을 비롯한 구 재단 세력들과의 싸움속에서 명확히 드러난 박승준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호하면서 학교의 개혁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렉스호텔에서 열렸던 총동문회 운영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33대 총학생회는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지난 5월 28일에 진행된 총동문회 운영이사회를 바라보면서 박승준을 비호하는 구 재단세력의 학교 재진입을 위한 음모가 우려됩니다. 총동문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은 그동안 총동문회가 보여준 구 재단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외대인은 작년 구 재단세력과의 싸움속에서 총동문회에 박승준 퇴진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총동문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 재단세력이 주최한 재단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재단을 또다시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박승준을 비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운영이사회에서는 동문회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모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총동문회의 개혁과는 무관하게 총동문회장 선출을 구 재단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게다가 작년 재단싸움의 과정에서 박승준을 비호하여 징계를 당하였던 여러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동문회 또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총동문회는 6만여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의지로 모여진 자발적 집단입니다. 그러나 총동문회는 몇몇 소수의 목적과 주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가 신입생들의 등록금 중 동문회비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문회가 동문회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히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동문회는 학교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외대 전구성원들은 외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학교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외대는 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장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동문회장과 그의 추천 1인 또한 대학평의원으로 참가하게 되는 만큼 총동문회가 모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동문회가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우선 총동문회를 장악하고 총동문회 분열을 야기시킨 구재단파 인사를 몰아내고, 총동문회 간사를 해임하여 공정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에 의해 총동문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매년 신입생들의 등록금으로 납입되는 동문회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새로 구성되는 총동문회는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한 참다운 비전과 사업계획을 전 외대 가족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외대 개혁 원년 1999년 6월 3일

서울배움터 33대 총학생회